

차례

[인사말]

· 독립전쟁 영웅들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냅시다!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02



[긴급 보고]

·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 투쟁 경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편집위원회

04



[기획특집]

역사 쿠데타에 맞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Q&A로 알아보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주장의 왜곡과 오류’ 임성욱 홍범도아카데미 전문위원

09

[표지그림]

· 작가의 글

오창환 어반스케처

24



[2023 특별기획]

·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3)

반병률 홍범도아카데미 원장/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25



[특별 기자회견]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참변과 무관함’을 명시한 정부 문건 공개

· 한 입으로 두말하는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역사 왜곡을 규탄한다!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국회의원

32



[특별 기고]

·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는 ‘21세기 매카시즘’이다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

36

[특별 기고]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물으신다

· “너희들은 어느 길로 갈거야?”

박드미트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카자흐스탄 지사장

38



[시민 기고]

· 홍범도장군 흉상 철거 반대합니다!

안양시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

41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45

회원 동정

47

독립전쟁 영웅들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냅시다!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원식 이사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20년은 독립전쟁의 해였습니다. 3.1운동으로 자각한 청년들은 독립군에 투신했고, 만주와 간도 곳곳에 터 잡은 독립군 부대들이 바로 독립전쟁의 주역이었습니다. 광복은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빼앗긴 날부터 독립을 되찾는 날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이겨낸 결과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빛나는 ‘독립전쟁’의 역사가 있었고 봉오동 전투·청산리대첩이라는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조국 독립만을 외치며 목숨 바친 영웅들 그리고 수많은 무명용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주역들인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장군을 기리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교내 충무관 앞에는 다섯 분의 흉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육군사관학교가 항일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하려 합니다. 다섯 분의 흉상은 그냥 세운 것이 아닙니다.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고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이며, 대한민국 국군은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흉상철거 문제를 두고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우리 국민의 70%가 분노하는 이유는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다 하신 독립전쟁 영웅의 명예를 더럽히고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평소 독립운동가에 대해 존경심을 가진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에 기념사업회는 홍 장군님의 유해봉환 2주년이 끝난 직후인 올여름 막바지부터 흉상철거 반대를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립전쟁 영웅 흉상철거 백지화를 위한 한민족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흉상철거 백지화의 염원을 담은 △전국 시민 걷기대회, △릴레이 1인 시위, △규탄대회, △봉오동 전투 영화 단체 상영회 등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흉상철거에 대한 책임자 처벌,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 법제화도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방현석 작가님의 소설 ‘범도’와 관련한 전국 순회 북 콘서트가 올여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8월에는 스탈린 시대에 있었던 우리 민족 최대 비극 중의 하나인 강제이주 사건을 주제로 한 카자흐스탄 국립 고려극장 연극팀의 공연 ‘40일간의 기적’이 서울과 대전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카자흐스탄 방문 이후 교육, 농업기술, 동포교류 분야에 걸쳐 카자흐스탄과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년 전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의 품에 보내는 것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들의 큰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서운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최상의 예우로 끝까지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홍범도 장군을 명예롭게 생각하며 척박한 땅에 뿌리내린 고려인들의 가슴에도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국권을 잃고 만주로, 연해주로 떠돌며 오로지 조국의 독립만을 외치다 타국만리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해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마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리저리 떠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중들이 써왔습니다. 500년 조선을 지탱해온 것은 백성들이었으며, 왕이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쳐도 의병이 되어 왜구와 맞선 것은 민초들이었습니다.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한 권력자들이 나라를 일본에 넘겼음에도 조선의 민중들은 쉬지 않고 투쟁했습니다.

올해는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가자 유해봉환 2주기를 맞아 벌어진 역사전쟁에 맞서 우리 모두 독립군이 되어 역사의 퇴행을 막아냅시다. 독립전쟁 영웅들을 지키고 대한민국 정체성도 지켜냅시다! 앞으로도 기념사업회는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 투쟁 경과 (2023년 8월 24일 ~ 11월 3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편집위원회

2023년 8월 24일 (목)

- 오후 3시 : 육사 내 홍범도 장군, 지청천 장군, 이회영 선생, 김좌진 장군, 이범석 장군
흉상 독립기념관으로 철거/이전을 내일(8월 25일) 한다는 정보 입수.
- 오후 4시 : 사실 확인 및 기자회견 결정
- 오후 8시 : 8월 2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재확인(흉상 철거를 한다는 소식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문의가 빗발침)

2023년 8월 25일 (금)

- 오전 9시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주요 참석인사>
우원식(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국회의원)
이종걸(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회영 선생 손자)
김을동(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좌진 장군 손녀)
이준식(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지청천 장군 외손자)
박덕진(시민 모임 “독립” 대표)
- 김병주 의원 : 국방위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질의
- 이종섭 국방부장관 : "이분들 중 소련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도 있다.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발언
- 우원식 의원 :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참변과 무관함'에 대해 기자회견
- 광복회 성명 "독립운동 역사 지우기로 인식"

2023년 8월 27일 (일)

- 국방부 대변인 : 홍범도함 함명 변경 시사

2023년 8월 28일 (월)

- 정부 고위 관계자 :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공동청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도 철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

- 국방부 : 독립운동가 5인 중 홍범도 장군 흉상만 육사 교외로 철거할 것이라고 발표
- 국방부 : 기사단에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국방부 입장문" 배포
- 이종찬 광복회장 :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공개 서한 송부
- 시인 서해성 : 시 "동상암살" 발표
- 신원식 의원 : 이종찬 광복회장 사퇴 주장

2023년 8월 29일 (화)

- 국방부 정례 브리핑
- 신원식 의원 : 대한민국 정통성부정 육사 공산주의자 흉상 존치 규탄대회 기자회견

2023년 8월 30일 (수)

- 국방부 :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만 교외로 옮기고 국방부 앞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 한덕수 국무총리 : 육사 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교외로 옮기는 계획이 타당하다고 발언

2023년 8월 31일 (목)

- 한덕수 총리 : 홍범도함 함명 변경 검토 발언
- 채널A : 홍범도 장군 등 흉상 철거하고 육사 내 '한미동맹 공원'을 조성하여 여기에 밴플리트, 맥아더, 백선엽 등 10대
영웅 동상을 만드는 계획안에 대해 보도
- 육사가 이전을 고려하는 독립유공자 동상이 기존에 알려진 5기 외에 박승환 참령의 동상도 포함되어 총 6기였다는
사실이 보도됨. 육사는 그중 홍범도 장군 흉상만 육사 교외로 이전한다고 발표

2023년 9월 1일 (금)

-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김병주, 김영호, 기동민, 윤후덕) 육사 항의 방문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지청천장군기념사업회, 이회영기념사업회 공동 흉상 철거 백지화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육사 앞 집회
- 국방부 "10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장군 인생 풀스토리" 영상 비공개 전환
- 뉴스 토마토 "홍범도장군 흉상철거 찬,반 여론조사(22.1% : 65.9%)"
- 리 류보비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 총예술감독과 박드미트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카자흐스탄 지사장 등
고려인 동포들은 9월 1일(현지시간) 알마티 고려극장에서 흉상 이전 계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2023년 9월 4일 (월)

- 이종섭 국방부장관 : 홍범도함 함명 변경 재차 발언

2023년 9월 5일 (화)

-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를 주도하는 육사 "기념물재배치위원회의 실무 총괄자가 나종남 육사 군사사학과 교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짐

2023년 9월 7일 (목)

- 이장우 대전시장 : 홍범도장군路 폐지 발언
- 독립영웅 흉상철거 백지화 및 책임자 처벌 한민족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돌입

2023년 9월 10일 (일)

- 흉상 철거 백지화와 책임자 처벌 요구 대전시민 걷기대회

2023년 9월 15일 (금)

- 광복회 : 광복군 창군 기념 축하 “일제의 머슴을 하던 이들이 국군의 원조라고?”
- 8월 25일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8월 28일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및 이전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며 아직 세부적인 방안이 결정된 건 아니라고 답변했으나, 육사는 그 이전인 8월 24일에 이미 흉상을 교외로 옮기기 위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마치고 트럭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됨
- 독립운동가 지청천, 윤기섭, 이상룡 후손 '육사 명예졸업장' 반납

2023년 9월 17일 (일)

- 흉상 철거 백지화와 책임자 처벌 요구 서울시민 걷기대회 1
- 흉상 철거 백지화와 책임자 처벌 요구 광주시민 걷기대회

2023년 9월 24일 (일)

- 흉상 철거 백지화와 책임자 처벌 요구 서울시민 걷기대회 2

2023년 9월 27일 (수) ~ 10월 3일 (화)

- 추석 연휴
- 서울역/용산역 흉상철거 백지화와 책임자 처벌 한민족 100만인 서명

2023년 10월 4일 (수)

- 육사 : 육사 교내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 결정

2023년 10월 6일 (금)

- 김완태 전 육사 교장 : “흉상 설치 교내 충분한 의견 수렴 거쳤다”고 발언

2023년 10월 11일 (수)

-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2023년 10월 13일 (금)

- 박민식 보훈부 장관 : “일본 대사관 앞에 안중근 흉상 그대로 두면 그게 적절한 것이냐”고 발언
-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 정부위 국정감사에서 “군의 정신을 제대로 함양하고자도자들에게 그런 정신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흉상은 (육사에) 두는 게 좋다”라고 발언

2023년 10월 14일 (토)

- 흉상 철거 백지화와 책임자 처벌 요구 마창진 시민 걷기대회

2023년 10월 16일 (월)

- 오세훈 시장 서울시청 국정감사 “동상을 육사에 그대로 두는 게 좋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2023년 10월 19일 (목)

-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윤 대통령의 공만큼 과도 만만치 않았으며 인사 문제, 반민주적인 김기현 체제, 홍범도 흉상 철거 등 이념적 잣대” 를 꼽으며 “17% 차로 여당 완패는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한 채점이 아니라,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반감의 산물”이라 함

2023년 10월 20일 (금)

- 이종찬 광복회장 : 무명용사 추모제에서 “군의 역사가 의병→독립군→광복군이 아니라 조선경비대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은 역사에 통탄할 일”이라고 평가함

2023년 10월 21일 (토)

- 흉상 철거 백지화와 책임자 처벌 요구 홍성군 시민 걷기대회
- 육사 : 육사 내 독립전쟁영웅실 철거 돌입

2023년 10월 22일 (일)

- 육사 내 독립 영웅실 철거에 대한 광복회 멘트 배포

2023년 10월 23일(월) ~ 29일 (일)

-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장군 순국 80주년 국민 추모
- 추모 도시 :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안산, 춘천, 알마티

2023년 10월 24일 (화)

- “육사 내 독립영웅 유공자 홍상 등 존치 국회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181명 국회의원 서명,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지청천장군기념사업회, 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대한고려인협회 주관
- 밤 9시, MBC PD수첩 “역사전쟁, 왜 홍범도 장군을 지우려 하나?” 편 방영

2023년 10월 25일 (수)

- 홍범도장군 순국 80주기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국립대전현충원)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참석

2023년 11월 3일 (금)

- 카자흐스탄 ‘홍범도장군 기념공원 및 거리’ 준공식
윤종진 국가보훈부장관 참석



▲ 9월1일 (금) 고려극장 기자회견.
리 류보비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 총예술감독(가운데)
박드미트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카자흐스탄 지사장(오른쪽)

[기획 특집]

역사 쿠데타에 맞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Q&A로 알아보는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주장의 왜곡과 오류’



임 성 옥 홍범도 아카데미 전문위원

최근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홍상 철거 이전을 결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및 극우 인사, 극우 언론들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하는 그럴듯한 주장과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 시민들 중에는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논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료(역사적 자료) 분석 및 해석의 오류, 근거 없는 추론과 상상에 따른 논리적 비약, 자신들의 신념에 역사를 끼워 맞추는 식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왜곡과 오류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쿠데타 세력의 주장과 논리에 담긴 왜곡과 오류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주장을 접한 시민들이 궁금해할 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Q&A 형식을 통해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Q1 :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 아닌가요?

“육군사관학교는 (중략)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억지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 2023년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의 발언

“육사의 전통과 정체성, 사관생도 교육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홍상이 육사에, 더욱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 왔음. (중략) 1927년에는 소련공산당에 입당하는 등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

- 2023년 8월 28일, 육사의 홍범도 장군 홍상 관련 국방부 입장문

A1 :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이 사상적으로 투철한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합니다.

- (1) 홍범도 장군은 1927년 59세의 나이에 뒤늦게 소련공산당에 입당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과 가족과 독립군 부하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함 이었습니다.
- (2) 홍범도 장군은 소련공산당 가입 전후에 집단 농장을 운영하였으며, 1937년에는 다른 고려인 들과 마찬가지로 강제이주를 겪으며 고생을 한 점에서 알 수 있듯, 소련으로부터 인정받는 공산주의자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3) 홍범도 장군은 스스로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 했다고 볼 만한 언행을 전혀 한 적이 없으며, 일생을 통해 그가 보여준 정체성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가입한 시기가 1927년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홍범도 장군의 나이는 59세였는데, 1929년부터는 노후 연금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1923년부터는 집단농장을 꾸려서 현실적으로 러시아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독립군 부하들 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국으로부터 황무지를 불하받아 농로를 만들고 농기구 등을 제공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 무렵 홍범도 장군은 재혼하여 부인과 부인이 데려온 딸이 있어서 가족이 늘어난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공적인 여건상 공산당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홍범도 장군이 사상적으로 투철한 공산주의자 였다면 그리고 공산당에 가입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굳이 뒤늦게 1927년이 아니라 나이도 더 젊고 활동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자유시참변 전후의 1921년 혹은 레닌을 만났던 1922년경에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마도 홍범도 장군은 당내 영향력도 키울 수 있었을 것 이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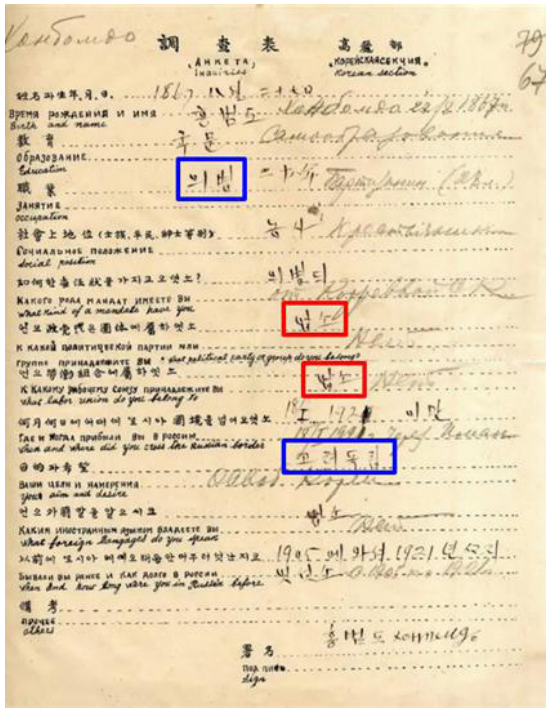
더 일찍 공산당에 가입할 기회가 얼마든지 많았음에도 홍범도 장군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굳이 말하자면 홍범도 장군은 ‘생계형’ 당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홍범도 장군은 소련공산당에 가입한 이후에 어떠한 직책을 맡은 적도 없으며, 특히 은퇴한 후에는 평당원이자 은퇴한 명예 군인으로서 집단농장 수직원 (수위장) 생활을 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게다가 1937년 에는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 아랄해 근처의 카잘린스 크라는 시골 벽촌으로 강제이주 당해야 했습니다. 만약 홍범도 장군이 소련으로부터 인정받는 공산주의자였다면 이러한 조치를 당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 홍범도 장군은 일생에 걸쳐 공산주의를 신봉 했다고 보여질 만한 언행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홍범도 장군은 1922년 1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원동민족대회)에 참가할 때 작성한 조사표의 [직업] 항목에 ‘의병’, [목적과 희망] 항목에 ‘고려 독립’이라고만 적었을 뿐입니다. 이는 많은 참가자들이 ‘조선독립을 목적하고 공산주의를 희망한다’ 또는 ‘공산주의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던 것과는 확연히 구별 됩니다. 또한 홍범도 장군은 조사표의 [소속 정당 및 단체] 항목과 [소속 노동조합] 항목에 모두 ‘없다’고 답했습니다. 즉 홍범도 장군은 당시 러시아령에서 활동했음에도, 또 자유시참변을 겪은 직후였음에도 어떠한 공산주의 정당 이나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범도 장군은 말년에 『홍범도 일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일생에 대한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이 회고록은 자신이 살아온 일생의 순간순간을 가감 없이 매우 솔직담 백하게 그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에서 홍범도 장군은 자신이 소련공산당에 가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전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홍범도 일지』는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걸쳐 관통하고 있는 정체성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홍범도 장군이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원동민족대회) 참가 당시 작성한 조사표>

Q2 : 그렇지만 홍범도 장군이 진정한 공산주의자였다는 기록이 있다는데요?

“주의할지이다. 우리의 수적(讎賊, 원수인 적)은 다못 일본 침략주의자뿐 아니라 동족 사이에도 잇나니라. 자서히 말하면 관료 급(及, 및) 유산자이며 홍(紅)〇와 같은 외홍내백(外紅內白, 겉은 빨강고 속은 하얗다)한 가면 공산당원들이로다.”

- 1921년 9월 15일, 고려공산당 중앙간부(코민테른 고려부) 및 각 의병대 수령 홍범도, 최진동, 허재욱(허근), 안무, 이 청천(지청천) 명의로 작성된 「우리 고려 노동 군중의게 [예게]」 중에서

“홍범도 동무는 레닌-쓰탈린당의 충직한 당원으로서 년치가 이미 높았음에 불구하고 사회사업에 열성 있게 참가하시었으며 당의 사명을 꾸준히 실행 하기에 정력을 앗기시지 않았다. 우리 조국애와 불

세워크당에 찍 충직한 홍범도 동무는 자기의 생의 경로를 진실히 마추고 길이 돌아가시었다.”
- 1943년 10월 27일자, 카자흐스탄 고려인 신문 『레닌의 기 치』에 실린 홍범도 장군 부고 기사 「홍범도 동무를 곡하노 라」 중에서

A2 : 그렇지 않습니다.

- (1) 첫 번째 문건은 이르쿠츠크파가 홍범도 등 독립군 부대장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홍범도 장군의 의사나 입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서입니다.
- (2) 두 번째 문건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지역 공산주의 기관지에 실린 부고 기사의 일부로서, 해당 부분은 소속 고려인 직원들이 홍범도 장군을 충성스러운 공산주의자로 ‘미화’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며, 소련공산당 상부의 공식적 평가가 아니어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건은 자유시참변 이후 한인 사회 내에서 가해자인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피해자인 상해파 고려공산당 간에 책임론이 불거지자 수세에 몰린 이르쿠 츠크파가 상해파를 공박하고 자신들의 무력 진압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1921년 9월 15일에 작성한 성명서 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외홍내백한 가면 공산당원들’ 이란 바로 상해파를 의미합니다. (자유시참변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 참조) 극우 언론과 여당 의원들은 이 문건의 내용 중 ‘유산자는 말할 것도 없고 철저히 못한 공산당원 마저도 적대시’하는 부분을 근거로 ‘홍범도는 무늬만 공산 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에 경도된, 뺏속까지 빨간 공산주의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이르쿠츠크파가 홍범도, 최진동, 안무, 이청천(지청천), 허재욱(허근) 등 간도 독립군 부대장 들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문서입니다. 1922년 2월 원동 혁명단체대표회(원동민족대회)에 참가한 홍범도, 최진동, 김동한은 공동 명의로 「조선 유격운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이르쿠츠크파가 자신들에게 부끄러운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최후통첩을 하는 등 협박했지만 자신들은 끝까지 이를 거부했으며, 그러자 그들은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들의 이름을 넣었다.’라고 폭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건은 홍범도 장군의 의사나 입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서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건은 홍범도 장군 사후에 크즐 오르다 지역 신문에 실린 부고 기사입니다. 극우 언론과 여당 의원들은 이 기사 중 ‘홍범도가 소련공산당의 충직한 당원으로서 당의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표현을 근거로 ‘홍범도는 레닌뿐만 아니라 스탈린에게도 충성을 다 바친, 불세비즘에 경도된 충직한 공산주의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닌의 지침』이라는 신문이 비록 순한글로 된 고려인 신문 이기는 하지만 발행 주체가 ‘카자흐공화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크즐오르다주 조직국 및 시르다리아 구역위원회’로서 공산당 기관지였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이주 등 고려인들의 삶의 어려움과 불만 등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즉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신문이 아니라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하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선전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부고 기사의 작성자가 강알렉세이, 김블라지미르, 서재욱, 남해룡, 김학권, 김기순으로 나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신문사의 주필 등 직원이었으며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었으므로 이들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를 당과 연결시켜 서술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고려인 사회의 존경받는 항일무장투쟁 지도자의 죽음을 소련공산당과 연결시킴으로써, 즉 단지 민족주의자의 죽음이 아니라 공산주의자의 죽음으로 포장·미화시킴으로써 고려인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련공산당 상부의 공식 평가 보고서가

아니라 소련의 변방 카자흐스탄 지역, 크즐오르다 주, 시르다리아 구역에서 소수민족 언어로 발행되는 조그마한 지역 신문에 실린, 당성이 충만한 소수민족 신문사 직원들 몇몇이 공산당의 통제하에 쓴 몇 줄짜리 부고 기사 내용 하나만으로는 홍범도 장군이 충직한 공산당원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3 :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참변에서 독립군을 몰살시키는 데 가담하거나 앞장섰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홍 장군이 1921년 6월 28일 자유시참변에서 한국의 무장 독립군을 몰살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이다.”

- 2021년 8월 16일자,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 「『독립군 학살 공모한 공산주의자』 홍범도 유해 대전현충원 임시안치」 기사 중에서

“그때 홍범도는 소련군의 편에서 이 학살에 가담했다. (중략) 자유시 참변은 항일무장독립운동사에 ‘궤멸적 타격’을 입힌 사건이며 홍범도는 소련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며 이 참변에 가담했다.”

- 2021년 8월 20일자,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 「[강규형 칼럼] 소련군 편들어 ‘자유시참변’ 가담… 홍범도의 ‘반민족행위’」 기사 중에서

“비록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나 그 뒤 내용은 자유시 거지에서 거의 1500명 되는 우리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 데 주역이었습니다.”

- 2022년 10월 24일,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현 국방부장관)의 발언

“홍범도 장군이 (중략) 1921년 6월 러시아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음.”

- 2023년 8월 28일,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국방부 입장문

- (3) 자유시참변으로 독립군은 몰살당했다거나 약 1,500명의 독립군이 씨가 말랐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낱조, 왜곡된 명백한 거짓입니다.
- (4) 사실이 아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시참변의 가해자로 ‘소련’, ‘소련군’, ‘소련 적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소련은 아직 수립되지도 않았습니니다.

우선 자유시참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내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20년 4월 시베리아 지역에 원동공화국이 수립되고, 또한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를 전후로 간도 참변이 발발하자, 러시아 원동지역 및 중국령 간도에서 활동하는 모든 독립군 세력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일단 원동공화국 스바보드니(자유시)로 이동하여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통합 독립군 부대를 조직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내 양대 한인 사회주의 세력인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 간에 독립군 통합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르쿠츠크파는 고려혁명군을 조직하여 통합을 추진했고, 상해파는 대한의용군(사할린특립의용대)을 조직하여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자유시참변이란 그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파국을 맞게 되면서 “1921년 6월 28일 원동공화국 스바보드니(자유시) 수라젍카 구역에서 이르쿠츠크파를 지지하는 고려혁명군정의회 총사령관 네스토르 칼란다리쉬빌리가 이끄는 부대가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의 지원을 받아 상해파 대한의용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홍범도 장군이 가담하여 독립군을 몰살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우선 자유시참변은 스바보드니(자유시) 중심으로부터 남쪽으로 3~4km 떨어진 수라젍카에서 발발했는데,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참변 당시 수라젍카에 있지 않았 습니다. 당시 진압병력은 고려혁명군정의회 의장 겸 총사령관 칼란다리쉬빌리가 이르쿠츠크에서 이끌고 온 코카서스 기병연대 500여 명,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 제2군

“자유시참변은 현 러시아 스보보드니(자유시) 제야강변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주력이었던 대한독립군단이 홍범도 등 공산주의 계열 독립군을 앞장세운 소련군(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에게 유혈진압당하며 궤멸된 사건을 말한다.”

- 2023년 8월 28일자, 인터넷 매체 『자유일보』 「홍범도, ‘자유시참변’에 앞장서 독립군 1400여 명 궤멸시켰다」 기사 중에서

“자유시(自由市)참변을 아는가? 1921년 소련 적군(赤軍)에 의해 우리 독립군 수백 수천 명이 몰살당한 끔찍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우리 무장 독립군은 사실상 궤멸됐다. 사료에 의해 홍범도 장군이 이 사건에서 소련 편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략) 그럼 우리 독립군을 살육했다는 사람을 다른 데도 아닌 육사에 모셔놓고 생도들에게 뭘 배우라는 것인가? 천보만보를 양보해도 동지를 학살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다”

- 2023년 8월 31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긴 글

“이들의 포위 공격 당시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홍범도를 비롯하여 지청천(이청천), 최진동, 안무 등도 적군 편입에 반대한 동료를 몰살하는 편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여러 학자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 2023년 9월 10일자, 『매일신문』 「[김용삼의 근대사] 한국 독립운동의 흑역사 자유시참변」 기사 중에서

A3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1)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참변 당시 사건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 (2)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참변 당시 무력진압을 주도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며 그러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29연대 약 1000명을 합하여 총 1500여 명으로 모두 러시아인이거나 코카서스 출신 군인들이었습니다. 간도에서 온 홍범도 및 안무 부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르쿠츠크파의 핵심인 오하묵이 이끄는 자유대대 부대원나 심지어 칼란다리쉬빌리가 이르쿠츠크로부터 자유시로 이끌고 온 합동민족연대 내 한인 부대원 등 어떤 한국인도 진압 현장에 없었으며, 따라서 진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유시참변 직후 진압병력을 지휘했던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 제29연대장 말라호프와 고려혁명군정의 회 총사령관 칼란다리쉬빌리가 연명으로 인민혁명군 제2군 총사령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둘째,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참변 당시 고려혁명군정의 회 및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의 무력진압에 대한 최종 결정, 명령 하달 및 작전 수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를 주도하거나 부분적으로라도 이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며 그러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한인 독립군 부대 통합 과정과 관련된 권한은 전적으로 러시아 측, 즉 코민테른 원동비서부,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 고려혁명군정의회 등에 있었으며 홍범도 등 간도에서 간 독립군 지도자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셋째, 자유시참변으로 독립군은 몰살당했으며, 약 1,500명의 독립군이 씨가 말랐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자유시참변의 피해자 수에 대해서는 가해자 측 주장과 피해자 측 주장의 차이가 크고 자료마다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대한의용군 측 독립군 '1500명이 씨가 말랐다' 또는 '몰살'되었다, 즉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죽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문서에 이처럼 근거 없이 사망자 수를 부풀리고 '몰살'이나 '씨가 마르다'라는 거짓되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참변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몰살시키는 데 앞장섰다.', '몰살시키는 데 협조했다',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 데 주역이었다', '몰살시켰던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 '독립군을 살육했다', '동지를 학살했다'는 등의 주장은 악의적으로 날조, 왜곡된 거짓 주장입니다.

넷째, 사실이 아닌 내용, 즉 오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시참변과 관련하여 '소련', '소련군', '소련 적군'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데, 1921년 당시 소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알면서도 '홍범도 장군이 민족을 배반하고 소련 편에 서서 독립군을 공격했다'는 거짓된 프레임을 씌우고, '소련'이라는 단어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김일성에게 6·25전쟁 남침을 허가한 소련'을 연상시켜 홍범도 장군을 한국전쟁 및 북한과 연관지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4 :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참변에서 직접 총을 쏘거나 진압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가해자 측인 이르쿠츠크파, 즉 고려혁명군정의회 편에 서으로써 가해자가 피해자를 학살하는 데에 동조 또는 방조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홍범도는 순순히 무장해제하는 편에 섰다. 그가 같은 독립군을 공격하는 데까지 가담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 2021년 8월 25일자,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 볼셰비키 홍범도에게 바친 최고 예우」 기사 중에서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 군정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군 통합을 지지했고, (중략) 자유시참변 사태는 1921년 6월에 자유시에서 무장해제를 거부한 독립군이 공격당한 사건을 말하는데, 홍범도 장군은 순순히 무장해제하는 편에 섰다는 평가임.”

- 2023년 8월 28일, 육사의 홍범도 장군 홍상 관련 국방부 입장문

“홍범도는 1921년 당시 만주에 산재한 무장독립군의 통합부대였던 대한독립군단의 부총재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1921년 6월 27일 자유시참변 때, **자신 휘하의 독립군을 데리고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 쪽에 가담하여 가해자가 되었다.** (중략) **홍범도는 여기서 소련공산당의 완전한 하부조직인 이르쿠츠크파에 가담하면서 같은 한인 독립군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가해자가 되었다.**”

- 2023년 8월 28일자, 인터넷 매체 『자유일보』
「홍범도, '자유시참변'에 앞장서 독립군 1400여 명 괴멸시켰다」 기사 중에서

A4 : 그렇지 않습니다.

- (1) 홍범도 장군은 초기에는 상해파가 주도하는 대한의용군에 합류했으며, 후기에는 이르쿠츠크파가 주도하는 고려혁명군에 합류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행보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통합을 주도하는 세력에 협조함으로써 마찰 없이 독립군 통합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 (2) 홍범도 장군은 가해자의 편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무장해제, 학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유혈충돌을 막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 (3)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참변의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자유시참변의 최대 피해자는 홍범도 장군의 부하이자 동지인 허재욱(허근) 부대의 의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와 일부 극우 언론은 홍범도 장군이 이르쿠츠크파의 고려혁명군정의회 쪽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가해자의 편에

섰다고 마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극우 인사 및 국방부의 주장에 나오는 '순순히 무장해제하는 편에 섰다'라는 부분은 '홍범도는 비굴 혹은 비겁하게 가해자의 편을 드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홍범도 장군을 비방하려는 악의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방부는 '소련공산당 군정의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소련공산당은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역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홍범도가 소련공산당 편을 들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전후 맥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해석이며, 오히려 홍범도 장군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홍범도 장군은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앞서 살펴봤듯 자유시참변의 주된 갈등의 축은 러시아령 양대 한인 공산주의 독립운동 세력인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간도 독립군으로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로 이동한 목적은 오직 하나, 한인 무장세력을 통합하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제대로 된 항일무장투쟁을 하여 독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간도에 있을 때부터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부대의 통합을 중시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도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참여한 독립군의 삼단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1921년 6월 2일 고려혁명군정의회에 합류한 이유 역시 독립군의 분열을 막고 통합에 찬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921년 3월에 자유시에 도착했을 당시에 모든 간도 독립군 부대 및 거의 모든 연해주 독립군 부대들과 함께 상해파의 대한의용군에 합류했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의 주체인 원동공화국 측이 상해파 측, 대한의용군의 깃발 아래로 통합하라는 명령을 이미 내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입장에서 이러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되어 자유시에 집결한 독립군의 통합에 관한 전권이 코민테른 원동비서부에게로 넘어갔고, 이르쿠츠크파를 중심으로 독립군을 통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원동공화국과 러시아 중앙 정부와 코민테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러시아 측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되었든 주도권을 쥔 쪽의 권위를 인정하여 큰 마찰 없이 통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한의용군 사령부는 고려혁명군정의회에 주도권을 뺏기느니 차라리 독립군 통합을 포기하고 북간도로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북간도 독립군 지도자들은 사령부의 지시에 반대하며, 이르쿠츠크 파와의 평화적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양자 간 갈등과 상호 불신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설득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범도 장군에게 선택지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대한의용군 지도부를 따라 통합을 포기하고 북간도로 되돌아가는 것과 고려혁명군정의회로 가서 통합에 힘을 보태는 것. 그런 상황에서 홍범도 장군과 다른 모든 북간도 독립군 지도자들은 통합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둘째, 홍범도 장군은 가해자의 편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무장해제, 학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유혈충돌을 막으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1921년 4월 코민테른 원동비서부가 통합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원동공화국도 이를 수용하게 되면서 이르쿠츠크파 중심의 통합이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코민테른 원동비서부는 대한의용군 측의 반발에 대해 초강경책을 펴 상해파 조직인 러시아공산당 원동총국 한인부와 아무르주 한인공산당을 해체하였으며, 상해파 간부들을 당에서 제명하고, 반혁명 혐의로 체포, 투옥시켰습니다. 바로 그 시기인 5월 6일 홍범도, 최진동 장군은 대한의용군과 고려혁명군의 무장충돌을 우려하여 자유시로 찾아가 평화적인 통일책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용군 사령부는 이 조치를 분열책으로 간주하고 홍범도, 최진동 장군을 가택연금

시켰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홍범도 장군은 6월 2일 자유시로 가서 고려혁명군정의회에 합류했는데, 6월 12일에 군정의회 지도부는 대한의용군 무장해제안을 두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때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북간도 독립군 부대와 이르쿠츠크 합동민족연대 병사들은 무장해제안에 반대하였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한의용군 측의 요구대로 군정의회 간부인 오하목, 김하석, 최고려의 퇴진을 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홍범도 장군이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유혈충돌을 막고, 독립군 부대를 평화적으로 통합시키려고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셋째,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참변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자유시참변 당시 현장에서 사살된 사람은 36~37명이었는데 이들은 최진동 부대와 허재욱(허근) 부대가 통합되어 결성된 총군부 소속으로서 더 자세히는 허재욱의 옛 의군부 부대원들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간도 독립군들이 고려혁명군정의회 쪽으로 넘어왔지만 허재욱의 부대원들 중 일부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밝혔듯 허재욱은 1907년 의병 시절부터 홍범도 장군과 함께 활동했던 오래된 전우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희생된 부대원들은 사실상 자신의 부대원이나 마찬가지로 여겼습니다. ‘자유시참변 당시 홍범도는 장교들과 술밭에 모여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애국지사 최계립(최봉설)의 증언 기록이 이를 방증합니다.

Q5 :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참변 과정에서 직접 총을 쏘거나 가해자의 편을 들지는 않았다고 해도 자유시참변 이후에 재판위원으로서 생존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국 가해자의 편에 선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홍범도 장군이 (중략) 소련공산당의 자유시참변 재판에 재판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중략) 약 500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재판하는 위원으로 참가한 것임.”

- 2023년 8월 28일, 육사의 홍범도 장군 홍상 관련 국방부 입장문

“홍범도가 이 학살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볼셰비키 편에 섰던 것은 사실이다.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체포된 독립군 860여 명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홍범도는 재판위원을 맡았다. 재판 결과 상당수 독립군이 수용소에 갇히는 등 고초를 겪었다. 당시에도 독립운동 진영에서 ‘홍범도 책임론’이 팽배해 그를 배신자로 모는가 하면 암살을 시도하는 일까지 있었다.”

- 2023년 8월 31일자, 『조선일보』 「자유시참변 때 가해자 볼셰비키 편에 서… 홍범도, 육사 롤모델 될 수 있나」 기사 중에서

A5 :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 (1) 이르쿠츠크파는 자유시참변 이후 비난이 쇄도하여 곤란하게 되자 홍범도 장군의 명의를 도용하여 상해파를 비난하는 문서를 발표하고, 또 홍범도 장군을 재판위원으로 참여케 하는 등 홍범도 장군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 (2) 그러한 상황에서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참변의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병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수와 형량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 (3) 또한 홍범도 장군은 재판이 끝난 이후, 자유시 참변 수습을 위해 코민테른 측과 협상하는 자리에 상해파의 핵심 인물인 김동한에게 전권을 위임함으로써 이르쿠츠크파에 대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자유시참변의 피해자 중 생포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을 때, 홍범도 장군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국방부와 일부 언론은 ‘홍범도가

자유시참변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닐지라도 추후에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므로 가해자나 마찬가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홍범도 장군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이르쿠츠크파 고려혁명군정의회 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은 일단 재판위원으로 참여하기는 했지만 결코 그들의 뜻대로 끌려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시참변이 발생한 지 2개월 남짓 후인 1921년 9월 초에 간도 독립군 11개 단체는 자유시참변에 대한 「성토문」을 발표하여 이르쿠츠크파를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르쿠츠크파는 그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우리 고려 노동 군중의게[에게]», 「자유시사변에 대한 의병장들의 포고」, 「경고문」 등의 문서를 쏟아내며 상해파를 비판하고 이르쿠츠크파 자신을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르쿠츠크파는 이 문건들의 작성자로서 홍범도, 최진동, 허재욱(허근), 안무, 이청천(지청천)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르쿠츠크파는 코민테른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허재욱과 이병채를 모스크바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허재욱과 이병채는 오히려 이르쿠츠크파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10월 25일에 제출하여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보고서에서 이르쿠츠크파가 온갖 협박과 탄압 조치를 다 해가며, 홍범도 장군 대신 자신들을 파견했는데, 그 이유는 홍범도 장군을 파견할 경우 독립군이 희생된 사실을 곧이곧대로 말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상해파의 핵심인 이동휘 등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와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이르쿠츠크파의 전횡과 자유시참변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상임 간부회는 이를 위해 조선문제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조선문제위원회는 11월에 15일 「코민테른 검사위원회 결정서」(11월 결정서)를 작성하여 자유시참변이발발한 것은 코민테른 원동비서부가 이르쿠츠크파를 일방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체포된 피해자 측 장교들의 석방 및 철저한 진상조사의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시참변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진 이르쿠츠크파는 피해자 측 장교들에 대한 재판을 통해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위원으로 채동순(위원장), 박승만, 홍범도 3인을 선임했습니다. 채동순과 박승만은 이르쿠츠크 공산당의 주요 간부였으며, 홍범도 장군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 중립적 입장의 인물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측이나 제3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재판임을 보여주지 위하여 당시 독립군 지도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 참전한 인물이자, 오랜 항일무장투쟁 경력으로 한인 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홍범도 장군을 들러리로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즉 이르쿠츠크파 측은 「우리 고려 노동 군중의게 [에게]」 등의 문서에 독립군 지도자들의 명의를 도용한 데 이어서 또다시 홍범도 장군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범도 장군은 이르쿠츠크파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순순히 굴복하여 요구에 응한 것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으나 홍범도 장군이 ‘재판에서 병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판에 참가했다’고 말했다는 애국지사 이인섭의 회고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홍범도 장군은 제약된 조건에서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유시참변 희생자의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한의용군 장교 총 5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최종 판결 결과는 징역 2년 3명, 징역 1년 5명, 집행유예 24명, 방면 17명이었습니다. 이는 자유시참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렇게 가혹한 처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코민테른의 눈치를 보고 있던 이르쿠츠크파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할 수도, 또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할 수도 없었으므로 적당한 범위와 형량의 유죄 판결을 내려 마무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위에서 언급한 이인섭의 회고대로 홍범도 장군이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재판 이후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21년 12월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핵심인 이동휘와 홍도가 「11월 결정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교섭을 위해 이르쿠츠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하여 코민테른 원동비서부 고려국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는데, 그중에는 자유시참변 수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12월 14일에 홍범도 장군과 최진동, 허재욱, 이청천, 이병채 등 간도 독립군 장교 27명은 상해파의 핵심 인물인 김동한에게 자유시참변 관련 협상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즉 이르쿠츠크파에 대한 반격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참변 이후 이르쿠츠크파에게 명의를 도용당하고, 재판위원으로 이용당하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그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상황의 반전을 도모해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Q6 : 홍범도 장군이 레닌을 만나러 간 것은 자유시참변을 보고하기 위함이었고, 레닌으로부터 상금과 군복과 권총을 선물 받은 것도 자유시참변에 협력한 대가였다는데요?

“홍범도. 자유시참변 때 독립군 수백 명을 학살한 소련군에 가담하여 공을 세웠다고 레닌으로부터 권총·군복·상금까지 받고, 소련공산당원이 됐습니다.”

- 2021년 8월 18일, 김문수(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

“홍범도는 그 직후 이런 협력의 대가로 1922년 2월 모스크바에서 소련의 최고지도자인 블라디미르 레닌으로부터 금화 100루블과 군복 한 벌, 홍범도의 이름이 새겨진 권총 등을 선물로 받았다.”

- 2021년 8월 20일자,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 「[강규형 칼럼] 소련군 편들어 ‘자유시참변’ 가담… 홍범도의 ‘반민족행위’」 기사 중에서

“그리고 레닌한테 가서 레닌의 권총도 받고, 소위 소련군이 된 이분을 굳이 홍상을 세우고 육사에 만들라고 했는지, (중략) 이거야말로 역사가 밝혀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2년 10월 24일,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현 국방부장관)의 발언

이 대회는 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시참변 이후로 더욱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가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는 주체로 인정 받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르쿠츠크파는 홍범도 장군을 모스크바에 파견하여 상해파의 이동휘에 맞서는 인물로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홍범도 장군은 대회 참가를 위한 조사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직업] 항목에 ‘의병’, [목적과 희망] 항목에 ‘고려 독립’이라고만 적었으며, [소속 정당 및 단체] 항목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즉 자신은 이르쿠츠크파도 아니고 상해파도 아니며, 어떠한 공산주의 정당이나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어느 쪽의 편을 들지도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홍범도 장군은 왜 이 대회에 참석한 것일까요? 홍범도 장군은 1932년에 작성한 이력서에서 “레닌 동무에게 자유시에서 조선 의병들 사이에 유혈적 사변이 난 데 대해 보고하려고 1921년 동짓달에 모스크바에 조선 의병 대표로 갔다.”고 썼습니다. 혹자들은 이를 두고 ‘홍범도가 레닌에게 자유시참변에 대해 보고를 한 후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상금과 권총과 러시아 적군 모자를 선물 받은 것’이라고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하며, 이 이력서야말로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참변에 가담하여 동지들을 죽이고 자기의 이익을 취했음을 보여주는 피할 수 없는 증거라며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홍범도 장군의 방문 목적은 그와 반대로 자유시참변의 가해자인 이르쿠츠크파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선 홍범도 장군은 1922년 1월 하순에 레닌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레닌은 자유시참변과 관련하여 질문을 했고 홍범도 장군은 몇 마디로 답했습니다. 자유시참변에 대한 대화가 짧았던 이유는 1921년 11월 코민테른 조선 문제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즉 자유시참변에 이르쿠츠크파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레닌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홍범도 장군과 레닌 사이의 자유시참변에 대한 대화는 이미 알고 있는

“구체적으로, 1991년 한소 수교 직후 발굴한 소련 측 정부 문서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이 1930년대에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기 위해 작성한 이력서에 “자유시 유혈사태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한인 빨치산지대 대표단원 자격으로 레닌 동지를 만나러 모스크바로 갔다”로 되어 있다는 것임. (중략) 그리고, 1922년 코민테른(국제공산당)이 개최한 ‘극동민족혁명단체대표대회’에 한인 대표 52명의 일원으로 참석하였고, 동년 레닌으로부터 권총, 상금, 친필 서명된 ‘조선군대장’ 증명서를 접수하였으며, 1927년에는 소련공산당에 입당하는 등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

- 2023년 8월 28일 육사의 홍범도 장군 홍상 관련 국방부 입장문

A6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1) 홍범도 장군은 레닌을 만나서 자유시참변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 작전 수행 결과를 보고한다거나 가해자의 입장을 두둔, 변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가해자를 비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2) 레닌이 홍범도 장군에게 선물을 준 것도 자유시참변에 협력했다거나 가해자 편에서 공을 세운 것에 대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항일 독립군 지도자로서의 공을 치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3) 또한 홍범도 장군은 레닌과의 만남 직후 러시아 측에 이르쿠츠크파와 러시아 정책 담당자들의 범죄를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922년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스크바와 페트로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원동민족대회)에 조선 대표단 56명의 일원으로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는 기본적으로 코민테른이 구미 제국주의 국가들의 회합인 워싱턴회의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원동지역의 각 약소민족들의 독립과 반제국주의 투쟁 및 사회주의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사실에 대한 간단한 확인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홍범도 장군의 답변도 11월 결정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르쿠츠크파에 대한 책임론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 홍범도 장군이 「11월 결정서」와 달리 이르쿠츠크파를 옹호하고 나섰더라면 레닌의 질문도 더 많아졌을 것이고, 홍범도 장군의 답변도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닌이 홍범도 장군에게 선물을 준 것도 자유시 참변에 협력했다거나 가해자 편에서 공을 세운 것에 대한 대가로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항일 독립군 지도자로서의 공을 치하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레닌이 홍범도 장군에게 친필서명한 ‘조선군대장’이라는 증명서를 주었다는 애국지사 김승빈의 기록이 이를 방증합니다. 참고로 홍범도 장군은 이때 레닌에게서 받은 상금 100루블을 곧바로 함공후원회와 세계혁명자후원회에 기부했습니다.

또한 홍범도 장군은 레닌과의 만남 이후인 1922년 2월 러시아공화국 군사혁명위원회 참모총장과 코민테른 집행 위원회에 최진동, 김동한과 공동 명의로 「조선 유격운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의 목적은 ‘원동에서의 이르쿠츠크파와 러시아 정책담당자들의 범죄를 밝히기 위함’이라 적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홍범도 장군은 이르쿠츠크파의 슈미야츠키, 최고려, 김하석, 오하목, 김철훈을 ‘4천년 조선의 역사 안에서 전례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살인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패배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던 동지들에게 배신자로 되어 경멸을 받기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르쿠츠크파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시참변의 결과에 겁을 먹고 있으며, 범죄를 은폐하려고 간도 독립군 지도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각종 성명서를 발표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7 : 홍범도 장군이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자유시참변에 책임이 없다고 해도, 어쨌든 소련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이고, 또 육사의 정체성은 자유민주

주의를 수호하고 북한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기 위한 장교를 길러내는 곳이니까,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육사에서 치우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육군사관학교는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호국간성을 양성하는 기관임. 6·25전쟁 발발 당시 육사 선배님들은 전선에 투입되어 북한 공산군에 맞서 싸웠고, 6·25전쟁 기간에 다시 개교하여 지금까지 북한과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 왔음. 육사의 전통과 정체성, 사관생도 교육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홍상이 육사에, 더욱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총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 왔음. (중략) 따라서,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되, 이후 소련공산당 활동에 동조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달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더욱이,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불법 남침하여 6·25전쟁을 자행한 엄연한 사실을 고려할 때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홍상을 육사에 설치하여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 시 적절하지 않음.”

앞으로 육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내 기념물 재정비계획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장교 양성이라는 학교의 정체성에 맞게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임. 특히, 사관생도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포함하여 국난 극복의 역사 전체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임. (중략) 국방부는 육사를 포함한 사관학교들이 독립운동과 6·25전쟁을 포함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예강군으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임.”

- 2023년 8월 28일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국방부 입장문

그러한 점에서 홍범도 장군은 대한민국 군대 및 육사의 정체성에 너무나도 잘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3) 국방부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로 포장된 반공주의를 강조하며, 홍범도 장군의 홍상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매우 극단적이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극단적 반공주의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 반공주의가 사상통제 체제로 작용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결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들먹이며 실제로는 극단적 반공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공 전체주의자’이자 ‘반공 파시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담긴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육군사관학교의 정체성은 공산주의와 북한의 침략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교를 길러내는 곳이다.
- (2) 그런데 홍범도는 독립운동을 했던 어쨌건 간에 스탈린 체제의 소련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 (3) 소련공산당은 김일성 공산당의 뿌리가 된다.
- (4) 무엇보다도 김일성이 불법 남침하여 6·25전쟁을 자행한 것은 소련공산당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 (5) 따라서, 육사의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 홍범도 장군은 육사와는 맞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육사의 정체성, 이를 더 확대하여 대한민국 군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지키는 것일까요?

“홍범도 장군은 독립투사로서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업적이 있다. 다만, 자유시참변과 1927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스탈린 체제의 소련공산당에 가입하는 등 1921년 이후 행적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논란이 있다.”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김일성 공산당의 뿌리가 되는 레닌-스탈린 공산당 당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자유시참변을 일으켰던 고려혁명군 측에 가담하고, 자유시참변 재판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레닌으로부터 상금·권총과 모자를 선물 받고, 스탈린 체제의 소련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만, 육사에 홍범도 장군 홍상이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 2023년 9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방부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현 국방부장관)의 서면 답변 자료

A7 :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 (1) 대한민국 군대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싸워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결코 북한이나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특정 대상으로부터만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될 수는 있어도 중국이나 베트남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공산주의 세력을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이제는 사라진 20세기의 소련공산당을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의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2) 홍범도 장군은 자신이 살던 시기에 마땅히 해야 할 대한민국 군대의 본연의 임무, 즉 적국 일본에 맞서 싸워 국가를 되찾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주적 일본에 맞서기 위해 당시의 우방인 러시아/소련과 협력 작전을 도모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모든 외부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즉, 단지 북한이나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특정 대상으로부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침략한다면 맞서 싸워 지키는 것입니다.

혹자는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킨 세력이고,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냐고,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 세력이므로 우리의 주적은 또한 공산주의가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주장은 일정 부분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략하거나 침략을 시도한다면 당연히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되며, 대한민국 군대는 이에 맞서 싸워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적이 공산주의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 군대의 적은 이 세상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다면 우리 군대는 중국공산당, 베트남공산당, 프랑스공산당, 스페인공산당, 미국공산당, 인도공산당, 일본공산당 등을 적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인 중국, 베트남 등과 국교를 단절하고 적국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즉,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를 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산주의 세력과 체제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이제는 사라진 20세기의 소련공산당을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의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령과 싸우겠다는 것이며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홍범도 장군은 소련공산당에 입당했기 때문에 우리 군대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 홍범도 장군이 살던 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적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소련은 우리의 주적 일본에 맞서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방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류 전쟁 역사상 우방 없이 단독으로만 전쟁을 치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약소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강대국들도 그러합니다. 또한 국제정치의 현실은 냉혹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방은 언제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을사늑약과 경술국치 당시 및 일제강점기에 적국 일본의 편이었지만 제2차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당시 우리의 우방이었으며, 현재는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러시아/소련은 일제강점기와 제2차세계대전 당시 우리의 우방이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우리의 적국이었으며, 현재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자신이 살던 시기에 마땅히 해야 할 대한민국 군대의 본연의 임무, 즉 적국일본에 맞서 싸워 국가를 되찾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주적 일본에 맞서기 위해 당시의 우방 러시아/소련과 협력 작전을 도모했습니다. 이승만도 적국 일본에 맞서기 위해 미국을 우방으로 삼아 독립운동을 했고, 김구도 적국 일본에 맞서기 위해 중국을 우방으로 삼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승만, 김구와 홍범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즉 홍범도 장군은 대한민국 군의 정체성이나 육사의 정체성에 안 맞다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우리 군과 육사의 정체성에 너무나도 잘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육사에 홍범도 장군의 홍상을 세워 기념하고 우리 군의 뿌리이자 생도들의 귀감으로 삼는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홍범도 장군이 가입한 1927년의 소련공산당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소련공산당이나 북한 김일성의 조선로동당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23년 후에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될지 예언을 해서 꼭 맞혀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셋째, 국방부의 입장문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하므로, 대한민국의 군대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곧 ‘반공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흔히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모든 나라에는 공산당이 존재하며, 사상의 자유가 존재합니다. 물론 혹자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상황이

다르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에는 현재 공산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흔히 좌파라고 불리는 정당들도 유럽의 정치 지형과 비교하면 중도 좌파에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절대 다수가 6·25전쟁 등의 경험을 통해 북한이 추구했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한국 실정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투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로 포장된 반공주의를 강조하여 이를 군대와 육사의 정체성으로 내세워 군이 홍범도 장군의 홍상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생각이며,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위험한 발상입니다. 극단적 반공주의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 반공주의가 사상통제 체제로 작용하여 시민들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나치 독일의 히틀러도, 일본제국주의의 천황제 군국주의 파시즘도 모두 극단적인 반공주의였습니다. 히틀러는 반공주의를 내세워 권력을 장악했고, 일제는 반공주의를 내세워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을 잔혹

하게 탄압했습니다. 한국의 역대 독재정권들도 반공주의를 내세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며 심지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학살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대는 그들의 비뚤어진 욕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요즘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반일감정을 선동하여 자유 세계를 교란시키고 공격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들먹이며 실제로는 극단적 반공주의를 추구함으로써 역사와 사상을 자기 입맛대로 처리하려는 세력이야말로, 또 독립전쟁 영웅의 홍상을 철거하는 행위를 통해 비뚤어진 역사관에 집착하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야말로.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군대를 ‘사상 군대’로 만들고 육사생도들을 ‘반공 기계’로 만들려는 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공 전체주의자’이자 ‘히틀러와 일제 군국주의를 그리워하는 반공 파시스트’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작가 오창환

- 약 력 -

1985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92 중앙대 영화과 대학원 졸업

2005 고양 어린이 영화제 프로그래머 역임

2022 ~ 현재 ; 어반스케처스 고양 대표

2015 ~ 현재 ; 어반스케처스 서울 회원

2021 ~ 22 ; 38갤러리 대표

2021 ~ 현재 ; 오마이 뉴스 시민기자 <앤디의 어반스
캐치 이야기> 연재중

저서 ; 오늘도 그리러 갑니다(2023, 토트북)

도시계획 변경 등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면, 동상을 파괴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 혁명이 일어났거나 나라를 잃었을 경우다. 지금 분명 혁명이 일어난 것은 아닌데, 항일독립운동의 영웅들의 업적을 폄훼하고 동상 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보면 나라를 뺏긴 것에 준하는 상황인 것 같다.

연초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 계간 발행 소식지에 표지 그림을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너무 기뻐했다. 나의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기념사업회 일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래서 대전 현충원의 홍범도 장군 묘소와 춘천 홍범도 장군 사격대회를 취재해서 '오마이 뉴스'에 기사도 쓰고 계간지 표지 그림으로도 실렸다. 그런데 갑자기 장군님 흉상 이전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9월 24일 <독립전쟁 영웅 홍상철거 백지화 서울시민 걷기 대회>를 그리기로 했다. 나는 어반스케처로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린다. 중계근린공원에서 시작된 걷기 대회는 육군사관학교 정문으로 와서 항의 시위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함께 걷기를 하면 그림 그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육사에 먼저 가서 배경 스케치를 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위대가 오질 않는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알아보니 내가 기다리던 곳은 행정안내소 문 쪽이고 정문은 다른 곳이 아닌가! 험레벌떡 정문으로 뛰어가 보니 이미 시위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어반스케처로서 삶의 현장을 그린다. 골목길이나 따뜻한 생활상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 역시 우리 삶의 현장이 아닌가. 시위 현장에 마침 큰 트럭이 있어서 나는 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시위현장을 그렸다.

이런 그림은 자세한 묘사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재빨리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스케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지 방송사가 취재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 취지를 잘 설명했다. 알고 보니 MBC가 동상 이전 문제를 심층 취재한다고 하는데 그 팀이 취재를 했다고 한다. 그림을 그리면서도 계속 드는 생각은 하나뿐이다. 장군님의 흉상은 1센티도 옮길 수가 없다.

[2023 특별기획]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3)



반 병 룰 홍범도아카데미 원장/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둘째 아들 홍용환과 애국지사 최병준

홍범도가 농사를 짓고 있던 추풍 당어재굴(신길동)에는 그의 아들 용환이가 의병 동지 최병준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홍범도가 1908년 말 의병대 재건을 기약하며 압록강을 건너 국외로 망명할 당시 둘째 아들 용환은 열두 살이었다. 홍범도는 어린 용환을 평생 동지 최병준에게 맡겼다. 1909년 말 창의대 본부를 창설하고 국내 진공을 준비할 때였다.

최병준(1870~1919)은 일제 첩보 보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에 '꼭도 두목'이나 '불령선인' 명단에 '최의관(崔議官)'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대한제국 시기 중추원(中樞院) 의원(議員)을 지냈기 때문이다. 최병준은 무신년(戊申年, 1908년) 이래 국내에서 항일 의병에 참여한 이래 꾸준히 항일 민족운동에 종사한 애국자였다. 해외로 이주해서는 중·러 국경 지역인 북간도와 연해주 솔밭관 지방 당어재굴에 정착해 살면서 오가는

항일애국자들의 숙식과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자료에 '최의관'으로 기록된 탓에 전문 역사학자들은 조차 '의관(議官)'을 '의관(醫官)'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을 정도로 그 진면목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

최병준은 홍범도의 기대와 믿음에 충심으로 부응하여 10년 동안 용환을 친자식처럼 길러주었다. 최병준은 용환이 홍범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고자 자신의 친 아들이라고 하고 이름도 러시아식으로 '최이완'이라고 바꿔 부르며 자신의 두 아들 최형식, 최찬식과 함께 지방 조선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였다. 이들 세 젊은이는 최병준의 보호와 가르침 속에서 열성적인 애국청년으로 성장하여 1920년대 연해주와 북간도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 전선에서 크게 활약하게 된다. 아들 홍용환과 최병준과 관련되어 전해지고 있는 가슴 아픈 일화에 대해서 차후에 소개할 것이다.



▲ 홍범도의 평생 동지 최병준의 둘째 아들이자 홍용환의 친우인 최찬식

제1차세계대전의 발발

1914년 8월,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러시아가 일본과 동맹국이 됨으로써 러시아지역 항일 민족운동 전체가 위기를 맞았다.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권업회 해산, 권업신문 폐간, 한인이주 150주년 행사 연기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일제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당국은 이동휘, 이종호, 계봉우, 허근 등 20명의 한인 지도자들에 대하여 추방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은신하거나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농촌지대 등 오지로 또는 북만주 지역으로 몸을 숨겼다.

홍범도 역시 러시아당국의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되자 이전에 갔던 아무르강 연안 지역으로 숨어들었다. 아무르강 하구 니항(미갈래, 니콜라옴스크-나-아무레) 부근의 어장에서 ‘어장꾼’으로 1년을 일하고, 꾸로바트, 통구쓰크, 비얀코, 안드리쓰크 등 아무르강 연안에 산재되어 있는 금광들을 돌아다니며 ‘금전꾼’으로 막일을 했다.

홍범도는 이렇게 막노동으로 벌은 3,050원을 가지고 이만(현재의 달리네레첸스크)으로 나왔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홍범도는 이만에서 총 17정과 탄환 1,700발을 구입하고 의병을 모집하였다. 홍범도는 『홍범도 일지』에서 “오연발 한 개에 탄환 100개씩 끼워 9원씩 주고 사서 중국놈에게서도 사고 고려놈에게서도 사고 로시아(놈)에게서도 사서 의병을 모집하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국제적 상황은 홍범도의 기대와 달리 더욱 악화일로로 걷고 있었다. 1915년 8월 일본 외무상 모토노 타로(本野太郎)가 러시아정부에게 메모를 보내고, 항일지도자 28명의 명단을 첨부하였다.

이 명단에는 연해주, 아무르주, 이르쿠츠크, 동중철도(東中鐵道, 中東鐵道) 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동휘, 최재형, 이상설, 계봉우, 이종호, 이상설, 허근, 이범윤 등과 함께 홍범도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게 이들을 체포하여 일본당국에 넘기거나(여호인의 경우), 시베리아의 오지로 추방해 줄 것(원호인의 경우)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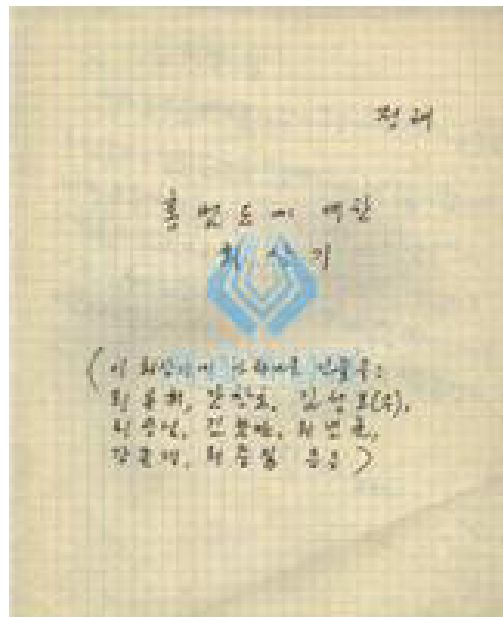
북만주 밀산(密山) 일대에서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활동이 힘들다고 판단한 홍범도는 의병들과 함께 무기를 들고 북만주의 밀산(密山)지역으로 들어갔다. 밀산 지역은 1909년말 이승희(李承熙)가 미국의 국민회에서 ‘원동전권대표’로 파견한 이상설(李相高)의 위탁을 받아 한인 농민 100호를 이주시켜 한흥동(韓興洞, 오늘날의 臨湖村)을 개척하였다. 이어 안창호의 미주 국민회가 파견한 김성무가 밀산의 십리와(十里窪)에 토지(960日耕)를 구입하고, 이상설이 다시 블라디보스토크의 김학만으로 하여금 남백포우자(南白泡子)에 토지(384日耕)를 구입하고 중국과 러시아지역의 한인 농민들을 이주시켜 한인 마을을 개척하도록 했다.

홍범도는 2년 반에 걸친 밀산에서의 생활을 『홍범도 일지』에서 다음과 같이 간략히 회상하였다. “의병을 모집하여 (총)17개를 싸 메고 봉밀산 김성무 집판(地板)에 가서 고려로 나가지 못하여 1915년 7월 26일(양력으로 9월 5일)부텀 산저장늑(山猪獐鹿, 멧돼지와

노루, 사슴)을 잡아먹기 시작하여 햇수로 이태 반을 사영(사냥)하다가...”

다행스럽게도 이 지역에서 홍범도와 더불어 활동한 바 있는 애국지사 정태가 당시 홍범도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이에 따르면,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려는 애국적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빈민들을 이주시켰지만, 토지를 개척할 재력이 없고 흉년이 되풀이되어 농민들은 매우 빈궁한 상태에 있었다. 홍범도는 군인(의병)들을 살게 하기도 바쁘게 주민들의 생활도 걱정해야 하는 판이었다. 그리하여 홍범도는 군인들을 한인 가호마다 배치하여 주인집의 일을 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홍범도는 군인들로 하여금 농촌 건설사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 밀산에서의 홍범도에 관해 기록한 정태의 홍범도에 대한 회상기(표지)

홍범도는 300여 호에 달하는 빈농들을 상종하게 되면서 이들 가운데는 몽매한 자와 불량자들도 있고 청년 아동들은 공부를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몇 사람들과 토의해 보았으나 자기 군인 중에는 교육사업을 지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다행히도 다음 해(1916년)에 정태라는 사람이 홍범도가 의병들을 이끌고 밀산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큰 희망을 품고 뒤따라 들어왔다. 정태는 나자구(羅子溝) 무관학교 출신이었다.

나자구무관학교는 이동휘, 김립 등이 1913년 가을 러일전쟁 10주년과 중일간의 외교 갈등을 예상하고 제2의 러일전쟁과 중일전쟁에 대비하여 비밀리에 수립한 대한광복군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독립전쟁에 대비하여 세운 사관양성학교였다. 홍범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태에게 교육사업을 맡겼다. 홍범도는 남백포우자와 한흥동에 고등소학교, 십리와와 쾌상별이(쿠이툰빠라, 현재의 當壁鎮)에 소학교를 설립하였다. 홍범도는 한흥동 학교의 교장과 교감직을 맡았고, 십리와와 쾌상별이 소학교의 찬성장(후원회장)으로 사업하였다.

홍범도는 학생들의 교육과 함께 학교를 근거로 운동회, 연설회를 열어 애국 사상을 고취하였다. 청년들을 사랑하였던 홍범도는 청년들로 하여금 ‘우리동무회’라는 청년단체를 조직하여 청년들을 입회시켜 야학과 운동을 의무화하였다.(1920년 여름 추풍지역에서 출발한 한족공산당이 조직한 최초 무장부대의 이름이 ‘우리동무군’이었다!) 홍범도는 손수 학교를 수리하고 교구를 장만했으며 운동장도 직접 쓰고 닦았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부모들을 설득하여 학생들을 모집했다. 이들에게 “우리나라가 망한 것도 인민이 문명하지 못 한 탓이며 도로 찾는 것도 문명에 있으니 아동을 학교에 보내라”고 하면서 설득하여 아이들을 끌어오다시피 했다. 홍범도는 백포우자에 사는 의병대원의 집에 유숙하면서 아침이며 일찍 일어나서 제일 어린 학생을 업고 좀 큰 학생은 손목을 끌고 큰 학생을 앞에 세우고 학교로 갔다. 풍설(風雪)이 나는 때에는 학교에 와서 학교 수업이 끝나는 것을 기다려 학생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곤 해서 학생들은 홍범도를 친부모처럼 여겼다고 한다.

홍범도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여 단오날에는 대운동회를 소집하였다. 1917년 단오날 행사는 십리에서 조선인청년대운동회를 열었는데 중국의 지방 육군도 참가하였다. 조선씨름판이 열리고 힘깨나 쓴다고 하는 청년들이 나섰는데, 최종 결판에는 ‘힘이 장사며 평양 감옥을 마수고(부수고) 도망쳐 나온’ 유상돈과 정벽이 맞붙었으나 군중의 외치는 소리로 중단할 정도로



▲ 홍범도가 청년운동·교육운동을 했던 밀산의 십리와기념비(전면)



▲ 홍범도가 청년운동·교육운동을 했던 밀산의 십리와기념비(후면)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고 한다.

1918년 단오날에도 쾌상별이에서 조선인 청년 대운동회가 열렸다.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 학교지도부인 홍범도와 정태가 장기(長技)를 보여주게 되었다. 정태는 긴 장대를 들고 사람의 세 키 높이로 뛰었고, 홍범도는 두 팔을 쭉 펴고 땅을 짚으면서 옆으로 돌아가는 ‘사팔 제비 운동’으로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다. 그는 “젊어서 하던 장난이 나이 먹으니 숨이 차서 더 못하겠구나”

하고는 땅에 주저 앉았고 군중의 요란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당시 밀산에는 홍범도와 정태 외에도 문덕빈, 이종집, 태정규, 강문경, 박그리고리 등 애국자들이 후일을 기약하며 체류하고 있었다. 정태는 또한 “김알렉산드라가 백파에게 총살될 때에 망명하여 중국 보첩으로부터 밀산에 내도한 이동휘는 홍범도와 만나 긴 담화가 있는 후 떠났다”고 회상했다. 정태는 후일 항일무장 투쟁의 지도자로 활약하게 되는 이들 애국지사의 행적을 근거로 밀산 지역이 후일의 독립군 운동의 발상지였다고 평가하였다.

하바롭스크의 ‘조선정치망명자회의’

밀산에 머물고 있던 홍범도가 하바롭스크를 방문한 일이 있는데, 1918년 2월 이동휘와 김립 등이 러시아 원동지역의 지방혁명정권인 원동인민위원회의의 후원으로 소집한 ‘조선정치망명자회의’에 참가한 것이다. 이 회의는 러시아 10월혁명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집된 대회로 양기탁, 이동녕, 유동열, 김규면, 장기영 등 연해주, 아무르주, 이르쿠츠크, 옴스크 등 러시아 지역과 남만주, 북경, 밀산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애국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홍범도 역시 김성무와 함께 밀산 지역 대표로 참석했다.

당시 하바롭스크에 당시에 모였던 대표들은 홍범도를 아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시내 남녀노소들은 서로 찾아와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하였다고 한다. 홍범도는 사람들과 담화하는데 “전부 왜놈을 잡던 회상이었고 장래의 의병(독립군)운동에 대한 말뿐이었다.” 그에게 장래에 조직될 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사업하라고 권면하면, “총 놀이나 왜놈 죽이는 것을 보여주라면 그것은 할 수 있지만, 첩판 앞에서 연설할 줄은 아지를 못합니다”고 하며 사양했다. “나는 추풍 당어재골에 가서 있다가 왜놈들과 전쟁이 시작되면 의병대를 조직하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직하려는 혁명당이 시키는 대로 전투하겠다는 것을 맹세합니다”고 말을 끝냈다.

추풍 당어재골의 최병준 집으로

홍범도가 밀산을 떠나게 된 계기는 러시아 원동 지역의 급격한 정세변화였다. 시베리아횡단철도를 거쳐 이동하고 있던 체코군이 1918년 5월 이후 반혁명 봉기를 일으켰고 급기야 6월 29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주둔 체코군이 봉기하였다. 체코군의 봉기를 계기로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군이 기다렸다는 듯이 러시아혁명에 대한 무력 개입을 단행하였다. 시베리아내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하여 시베리아와 러시아 원동지역에 이들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반혁명 백위파정권들이 들어섰다.

한인사회당 창당의 산파역이었던 원동인민위원회 외무인민위원 김알렉산드라가 하바롭스크의 백위파에 의해서 처형되고(1918.9.16) 이동휘 등 간부들은 하바롭스크를 떠나 북만주나 연해주의 농촌지역으로 도피하거나 잠복하였다. 시베리아와 원동러시아의 급격한 정세변화를 주시하고 있던 홍범도 역시 밀산을 떠나 평생 동지 최병준과 둘째 아들 용환이 거주하고 있는 추풍 당어재골(솔밭관)로 거처를 옮겼다. 홍범도는 이 사실을 『홍범도 일지』에서 “(밀산에서) 헛수로 이태반(2년 반)을 사영(사양)하다가 그 총을 밤으로 운반하여 추풍 당어재 골치기(골짜기) 최의관 병준 집에만다 묻어 놓고 농사를 시작하여”라고 간략하게 회상했다.

항일혁명이 이인섭의 회상기에 따르면, 일본군 등 간섭군의 출병과 백위파 정권 등장으로 한인사회당의 핵심 간부 이동휘, 김립, 이인섭 등 세 사람이 하바롭스크를 떠나 니콜스크-우수리스크(현재의 우수리스크)에 도피해와 있었다고 한다. 1918년 10월 말경, 이들은 새로운 정세 변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수이푼 당어재골 신길동(솔밭관)의 최병준 집에 머물고 있던 홍범도를 지도자로 하는 의병대(빨치산대)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간도 일본은행 15만원 탈취사건 주역들의 홍범도 방문

일본 헌병대의 체포를 피해 가까스로 살아남은 간도

15만원 탈취사건(1920.1.4.)의 주역 최봉설(최계립)의 회상에 따르면, 사건의 주역들은 사건 약 3개월 전인 1919년 9월경 당어재골에 머물고 있던 홍범도를 찾아갔다고 한다. 최봉설(최계립) 등 철혈광복단 단원 12명은 1919년 여름 대한국민의회 군무부장 김하석의 주선으로 동중철도 수비대(백위파 호르바트 군대)에 입대했다가 고역(苦役)뿐인 군대 생활로부터 탈출한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홍범도 장군을 찾아보기로 의견을 모은 후, 추풍 당어재골 최의관 집에 머물고 있던 홍범도 장군을 만났다. 당시 홍범도는 “아무 일도 없이 시세에 맞추어 한번 일떠서야 하겠는데 어쩔 셈인지 근심 중”에 있었다고 한다.

최봉설 일행은 “선생님 별 것 없이 혼자라도 북(北) 하마탕에 가십세다. 우리 간도 청년들이 모두 담당할 터이니 근심 마십시오. 군인들이며 총이며 피복이며 모도 근심 말고 선생이 오기만 하면 조선 독립은 다 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오십시오.” 주인 최병준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일행을 접대하였다. 일행은 홍범도 장군에게 용정의 일본은행을 털 것을 약속하였다.

며칠을 지내는데 최의관은 이들에게 “여기 지금 약담배[아편] 철이 되며 약담배를 하여 가지고 간도로 나갈 것”을 권유하였다. 최봉설 일행은 이튿날부터 담배 일을 2주일여를 일하고 보니 돈이 단포 하나씩 사고 집으로 돌아갈 여비가 되었다고 한다. 일이 잘되어 이들은 홍범도 장군과 모든 약조를 하고 당어재골을 떠났다. 이들은 소왕령(우스리스크)에 와서 의복을 사입고 해삼위로 가서 장기영을 만나 단포를 준비하고 간도로 나가 일본은행 15만 원을 탈취하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들은 탈취한 자금을 소지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 잠입하여 무기 구입을 모색하던 중, 러시아 혁명군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점령하던 바로 그날 1월 31일 새벽에 엄인섭 등 밀정의 밀고를 받은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는 비운을 맞이하고 말았다.



▲1919년 여름 연해주 추풍 당어재골의 홍범도 장군을 찾은 일화를 회상한 최계립



▲1919년 여름 연해주 추풍 당어재골의 홍범도 장군을 찾은 일화를 회상한 최계립(왼쪽 앉아 있는 사람)

‘자총(自統)’하여 홍용환의 목숨을 구한 최병준

망명 이후 둘째 아들 용환을 맡아 키운 홍범도의 의병 동지 최병준에 관한 가슴 아픈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 일화는 1920년 4월참변 후 최병준의 두 아들 최형식, 최찬식과 함께 ‘술밭관 군대’에서 활동한 바 있는 이범진이 남긴 회상기를 통해 알려진 이야기이다. 1919년 가을 최봉설 일행이 당어재골을 다녀간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다.

당시 연해주의 한인들이 러시아 혁명파(붉은 파)와 같이 군대를 조직하여 일본군과 전쟁하고 있었고 추풍 당어재골에 있던 홍범도 역시 의병을 모집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 이범진은 당시 수이푼(추풍) 구역 당어재골의 신길동에서 소작농을 하며 생활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었다. 그 동리에는 최의관이라는 “늙은 조선 민족 혁명자가 계시고, 최추송이라는 영리하고 혁혁한 혁명적 의기를 가진 대표적 인물인 청년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상한 조선인 두 사람이 그 촌 근방에서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홍이완(홍범도의 아들)과 최찬식(최의관의 아들)이 발견하고 일탐(日探, 일본 밀정)이라고 짐작하고 암살하였다. 그 후 자피거우 앵데기에 근거를 두고 무장한 독립군(이범윤의 관리사 군대)에서 암살당한 두 사람이 자기 부대원이라고 하고 홍이완과 최찬식을 체포하여 사형한다고 위협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찬식의 부친 최의관은 관리사 군대 사람들을 청하여 놓고서 말하기를, “두 사람을 암살한 것은 내가 그들 행동이 수상하니 일탐으로 알고 처단하라고 명령하여 죽였으니 내 과실이지 홍이완이와 최찬식이게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계속하여 말하기를, “나는 늙은 혁명자로서 젊은 혁명자 두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죽어야 상당하다”고 선언하고 가지고 있던 단총으로 자살하고 말았다.

최병준의 자살에도 불구하고 의군부 군인들은 최창식과 홍이완(용환)을 체포하여 가지고 앵데기로 갔다가 그들을 무죄하다고 풀어주어서야 두 사람이 신길동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에도 관리사 군대 대원들은 다시 신길동 최찬식 집에 달려들어 최병준의 며느리를 구타하고 찬식과 용환을 내놓으라고 강박하였고, 나중에는 피살된 두 사람의 시체를 내어 놓으라고 만행을 하는 바람에 찬식과 용환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가슴 아픈 일화와 더불어 최병준은 홍범도가 가장 신뢰했던 진실한 애국자로서 오랫동안 기억되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국내외에서 3.1운동의 발발로 항일독립운동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홍범도는 오랫동안 준비하며 기다렸던 본격적인 항무장투쟁에 나섰다. 『홍범도 일지』에서 홍범도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18년전 고려 독립만세가 불일 듯 함으로 농사고 뚝고 나가자 하고 물어두었던 총을 끄집어내어 일변 닦으며 일변 의병모집과 탄환모집과 일변 원조하여 의병들 입힐 것과 천리경 그러한 것을 갖추다나니...”

홍범도가 3.1운동이후 본격적인 항일무장투쟁에 나서게 된 것은 이동휘가 조직한 군정부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군 정부는 1913년말에 조직되어 1915년 중반까지 연해주와 북간도 일대를 근거로 활동하던 대한광복군정부를 잇는 조직이었다. 역사가이자 항일혁명가인 계봉우가 『독립신문』(1920년 4월 8일자)에 기고한 ‘아령실기(俄領實記)에 따르면, 대한국민의회의 선전부(宣戰部, 후에 군무부로 개칭) 부장으로 선임된 이동휘가 추풍 당어재골을 근거지로 하고 군인을 모집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나자구무관 학교에서 사관교육을 받은 학생 일동과 홍범도의 부하와 황병길, 이명순, 최경천 등 이끌고 온 군인을 합동하여 군대를 편성하였는데, 지휘관 이용, 접제원 최병준, 최창준, 황원오 등, 군자금 모집 오주혁, 박군천, 주계(主計) 김립, 이중집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일본총영사 기쿠지 기로(菊池義郎)의 첩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당어재골의 한인 가옥에는 이르는 곳마다 조선관병(朝鮮官兵, 독립군)들이 충만되어 있었고 어떤 집에는 한 집에 70인을 수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 독립군은 매일 일정한 시간 조련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농사를 짓는 등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다.

한편, 홍범도와 함께 밀산에서 활동한 바 있는 정태에 의하면,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미 비밀리에 조직되어 있던 ‘군정부’(군정부장 이동휘, 부원 이용, 장기영)에서 홍범도를 ‘독립군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는 북간도로 가서 독립군을 지휘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한다. 그리하여 ‘대한독립군’이란 명칭은 홍범도가 러시아 연해주에서 조직하여 북간도로 들어가게 군대를 일컫는 고유명사로 되었으며, 홍범도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다.



▲홍범도에게 북간도로 들어가 대한독립군총사령관으로 독립군을 총지휘하라는 통지서를 보낸 군정부 부장 이동휘(상해 시절)

[특별 기자회견]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참변과 무관함’을 명시한 정부 문건 공개 한 입으로 두말하는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역사 왜곡을 규탄한다!



- 일시 : 9월 11일(월) 14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국회의원 우원식

국방부는 지난 8월 28일 '육사의 홍범도 장군 홍상 관련 입장' 자료를 배포해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홍상을 육사에 설치하여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 시 적절하지 않다"라며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과 연관된 의혹이 있다'라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소속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는 이미 93년도에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참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문서에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 전쟁기념사업회는 국방부를 통해 저에게 이와 관련한 문서를 제출했고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1. 1994년, 전쟁기념관 설립 당시 세워진 홍범도 장군 홍상 관련 문건에서 홍 장군은 '자유시참변'과는 관계가 없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94년 6월 개관했습니다. 개관과 함께 삼국시대부터 월남전에 이르기까지 외침으로 국난을 당했을 때 목숨을 바쳐 국가와 민족을 구한 전쟁영웅 132명을 추모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의 홍상 또는 초상화, 사진을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모대상자 중 1급 유공자로 선정된 32명에 대해서는 따로 홍상을 제작했습니다. 93년에 작성된 '전쟁 유공 추모 대상자 전시물 제작 설치를 위한 운영위원회' 계획 문건에 따르면 "제작 대상 인물은 공식 기록문과 학술적으로 정립된 분야로 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 유공 추모 대상자 공훈카드'를 제작하고 각 유공자에 대한 공적 사항을 정리합니다.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홍범도 장군의 공훈카드는 "의병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10년 이후에는 대한독립군사령관으로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시킴"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세부공적내용'에는 "그 후 소련으로 건너가 활동하다가 소련군의 배신으로 자유시 참변을 겪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1993년도에 홍범도 장군을 자유시참변의 희생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 "1921년 11월 조선 항일군의 대표로 모스크바에서 레닌을 만나 독립전쟁에 소요될 무기를 원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라고 이어 집니다. 홍 장군의 모스크바 방문 당시 출입국 기록 카드와 마찬가지로, 방문 목적이 독립전쟁을 위한 것임을 국방부 역시 인정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 갑자기 홍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이념과 입맛에 맞춰 사초를 뒤집으려 하는 명백한 '역사왜곡' 행위입니다.

2. 1997년 '6월의 호국인물'로 홍범도 장군을 선정한 당시의 근거자료에도 '자유시참변'의 희생자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97년도 호국인물 월별 행사 대상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은 6월의 호국인물로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봉오동 전투'라고 적혀있습니다. 관련해 97년 5월에 기안된 선정 보고 문건에는 홍 장군의 공적 내용에 대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홍 장군은 "1921년 6월, 자유시참변을 겪고 무장해제를 당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육사홍상철거 논란 속에서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 당시 "독립군 무장해제하는 편에 섰다."라고 했지만 이미 24년 전에 스스로 홍 장군을 '호국인물'로 내세우며 그 근거 중 하나로 자유시참변 당시 무장해제를 당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3. 더 거슬러 올라가 1987년 보훈처에서 작성한 '독립유공자공훈록'에도 홍 장군이 자유시참변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한 홍범도 장군의 전쟁 유공자 공훈카드의 '근거문헌'으로는 '독립유공자공훈록 제4권'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보훈부로부터 이 공훈록 원본을 제출받아 살펴보니 "그후 노령 지역으로 이동한 독립군단은 자유시를 근거로 삼고 소련군과 긴밀한 접촉을 하였다. 그러나 1921년 6월 소련 공산당의 배반으로 독립군은 무장이 해제되고 포로가 되는 등 소위 '자유시참변'을 겪게 되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93년과 97년의 문서 이전에 이미 1987년에 국가보훈처에서 발간한 공훈록에 의해 이 논란은 정리되었던

것입니다. 국방부는 홍 장군이 자유시 참변과 관련된 의혹이 있음을 주장하며 “지금까지 알려진 군 내의 자료, 또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젓이 과거의 ‘군 내의 자료’에서 홍 장군이 자유시 참변의 희생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모스크바 방문 역시 ‘독립전쟁’을 위한 것이라고까지 되어있는데, 도대체 무슨 자료를 토대로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까? 국방부가 한 입으로 두말하며 스스로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홍상 철거 계획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군과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전쟁’입니다. 반헌법적 발상으로 독립 전쟁의 역사를 훼손하려는 만행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작한 독립전쟁 영웅 홍상 철거 백지화를 위한 한민족 100만인 서명운동에 벌써 10만 명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3.9.11.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국회의원 우원식

[별첨1] 93년도에 작성된 홍범도장군의 전쟁유공 추모 대상자 공훈카드

전쟁 유공 추모 대상자 공훈카드				공 적 세 부 내 용		
시대구분	군 대	신분구분	특정군	종 당	시대	성 분
신 명	홍 범 도	장 용	생년월일: 1868. 8. 27	(1) 생 명	한 살 홍 범 도	(한 문) 홍 범 도
신 명	홍 범 도	신 명	사망년월일: 1943. 10. 25	(2) 초 명	範 道	호, 자
출 생 지	평壤	주 소 (주거지)		(3) 학 령	주備道南 營城兵	
당 시 지 속		당 시 지 속	大韓獨立軍 總司令	(4) 기 타		
최종소속		최종지속	大韓獨立軍 副總司令	(5) 세부 공적 내용		
작소전투	曹山追擊戰 曹山追擊戰	상동내용	羅南勳軍 大韓領軍	1895년 일제에 의하여 독립을 위하여 시변을 일으킨 후 1907년 5월 11일 15일 산포대(山砲隊)를 조직하여 의병활동을 벌임. 그 후 간도(間島)로 건너가 1920년 대한독립군(大韓獨立軍)의 사령관으로 만포진(滿浦鎭) · 삼둔자(三屯子) · 봉오동(鳳梧洞) · 청산리(靑山里) 등지에서 일본군(日本軍)과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둠. 건국훈장 대통령장(建國勳章 大統領章)이 수여됨.		

(5) 세부 공적 내용

그후 소련으로 건너가 활동하다가 소련군의 배신으로 자유시 참변을 겪었다. 1921년 11월 조선 합일군의 대표로 모스크바에서 해군을 만나 독립전쟁에 소요될 무기를 원조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실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후 소련에 머물러 있다가 1943년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1920년 5월 11일 15일 산포대(山砲隊)를 조직하여 의병활동을 벌임. 그 후 간도(間島)로 건너가 1920년 대한독립군(大韓獨立軍)의 사령관으로 만포진(滿浦鎭) · 삼둔자(三屯子) · 봉오동(鳳梧洞) · 청산리(靑山里) 등지에서 일본군(日本軍)과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둠. 건국훈장 대통령장(建國勳章 大統領章)이 수여됨.

[별첨2] 97년도 기안된 6월의 호국인물 관련 전쟁기념사업회 자료

전쟁기념사업회

무·서·정·사·관·군·공·민·정 1기 8면지 / 전화·709-3068(비제관) / 전승·709-3100

문서번호 : 97년 6월 6월 호국인물 洪範圖 장군 공적 내용 통보

시행일자 : 1997. 5. 22.

수 신 : 송우부장

참 조 :

제 목 : 97년 6월의 호국인물 洪範圖 장군 공적 내용 통보

1. 國庫 保護 : 97년 6월 호국인물 洪範圖 장군 공적 내용 통보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97년 4월 '이 달의 호국인물' 대상자인 大韓獨立軍 사령관 洪範圖 장군의 功績 內容과 遺家族, 관련 단체 현황, 연락처 등을 통보하오니 행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적 내용 : 8 뒷붙임 참조

4. 말기작, 관련 단체 현황 및 연락처

구 분 : 생일 / 단체명 : 지 : 비 고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97년 4월 '이 달의 호국인물' 대상자인 大韓獨立軍 사령관 洪範圖 장군의 功績 內容과 遺家族, 관련 단체 현황, 연락처 등을 통보하오니 행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 범 도(洪範圖) 장군

Hong Põm-do

1868. 8. 27 ~ 1943. 10. 25

평남 평양(平南 平壤) 출생.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 1907년 11월 산포대(山砲隊)를 조직하여 의병활동을 벌임. 그 후 간도(間島)로 건너가 1920년 대한독립군(大韓獨立軍)의 사령관으로 만포진(滿浦鎭) · 삼둔자(三屯子) · 봉오동(鳳梧洞) · 청산리(靑山里) 등지에서 일본군(日本軍)과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둠. 건국훈장 대통령장(建國勳章 大統領章)이 수여됨.

[별첨3] 87년도에 보훈부에서 출간한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4권 중 홍범도 장군 부분

홍 범 도(洪範圖) 1869. 8. 27 ~ (1943) 號 : 政手 이명 : 範道

GOVP1159100271

獨立有功者功勳錄

第 4 卷

獨立軍과 滿洲·露領地域의 獨立運動

독립유공자공훈록 978p

그후 노령(露領)지역으로 이동한 독립군단은 자유시(自由市)를 근거지로 삼고 소련 군과 긴밀한 접촉을 하였다. 그러나 1921년 6월 소련 공산당의 배반으로 독립군은 무장이 해제되고 포로가 되는 등 소위 '자유시참변'을 겪게 되었다.

[특별 기고]

※ 이 글은 오마이뉴스 9월 22일 자에 실린 황원섭 시민기자의 기사로서, 이번 소식지에 다시 게재합니다.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시도는 ‘21세기 매카시즘’이다



황 원 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

1950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공화당 여성 당원대회에서 매카시(Joseph McCarthy) 상원의원은 국무성 내 공산주의자 205명의 명단을 공개하여 검거 선포로 이어져 1954년까지 용공 시비로 공무원 5,300여 명이 퇴직했다. 매카시즘은 근거 없이 반대편을 매도하고 억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보통명사가 되었다.

21세기 판 매카시즘이 대명천지 서울 한복판,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의원이(현재 국방부장관)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했고, 지난 8월 2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건립된 독립전쟁 영웅 다섯 분의 홍상은 설치 장소가 적절하지 못하고, 전체 국란 극복사 중 독립운동 기간에 편중되었고,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에 입당하여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분이라 육사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방부에서는 홍 장군은 새로운 자료에 의하면, 1919년

부터 1921년까지 공산당 빨치산 투쟁을 했고, 1921년 자유시 참변에서 독립군을 사살한 의혹이 있으며, 1927년에는 공산당에 입당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어, 북한 공산당을 주적으로 교육하는 육사에 존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1년 러시아 수교 후 우리 학자들이 러시아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사실관계가 밝혀졌다. 모스크바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에 참석하고, 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산당 사상을 가지고 활동한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철저한 민족주의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1921년 자유시 참변에도 고려혁명군으로 편성되었지만, 주도권 다툼을 한 상해파나 이르쿠츠크파에는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홍범도 장군의 이념이나 사상 문제는 1962년 건국훈장을 수여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2015년 홍범도

함명 검토 시에도 학계에서 논의했고, 2017년 국방부에서 국군의 연혁을 의병, 독립군, 광복군을 계승했다는 결정을 할 때도 충분히 고려했다. 육사에서는 2018년 명예졸업장을 수여했고, 2022년 국방부 청사를 이전할 때 홍범도 장군의 홍상도 함께 이전하였으나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범도 장군의 사상 문제가 갑자기 제기된 것은 작년부터 뉴라이트 극우 친일세력이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면서 독립운동을 폄훼하려는 시도와 같은 맥락이다. 군부에서도 친일세력을 건국세력으로 둔갑시켜 신분을 세탁하려는 의도에서 동조한 것이다.

홍상이 육사 교정에 세워진 배경도 살펴봐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은 광복군을 계승한다는 원칙에 따라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광복군 출신 이범석 장관과 차관으로 최용덕을 임명했고, 장관 훈령 제1호가 “국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연로한 광복군 출신이 퇴진하고 일본군 출신이 주도함에 따라 독립운동을 부인하고 1946년 조선국방경비대가 국군의 뿌리로 왜곡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학계와 독립운동단체에서 역사적 사실과 헌법정신에 따라 국군의 연원을 복원해야 된다고 주장하여, 2017년에 의병,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는 사실이 회복되었다.

육군사관학교에 독립군과 광복군 지도자의 홍상을 세운 것은 국군의 연원을 분명히 밝히고, 특히 해군이나 공군과는 달리 독립운동을 부인한 육군의 각성과 결의를 보이려는 상징물이다. 육군 출신 일부 친일파 잔재들이 국란극복사를 얘기하고, 홍범도 장군을 근거도 없이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조작된 것이다.

무장투쟁의 근거지가 만주와 연해주였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방이었으며 항일운동을 함께 했던 동지적 관계였다. 경우에 따라 소련이 일본과 우호적일 때는 독립운동을 탄압하기도 했다.

갑자기 홍범도 장군이 6.25 남침에 가담한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경력이 있어 북한을 주적으로 교육하는 육사에 홍상을 존치할 수 없다는 논리는 사실관계나 상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역사는 그 시대의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분석하여 판단하고 해석해야 한다. 6.25 전쟁 사관을 가지고 한 세기 전의 역사를 재단한다면 올바른 역사연구방법이 아니며, 매카시즘이 될 수밖에 없다.

1920년 10월 24일자 “뉴욕 트리뷴”에 한국인의 독립 의지와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인이 시베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들이 볼셰비키의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나라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에 따라 행동한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붉은 러시아건, 하얀 미국이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어떠한 도움이라도 받을 것이다.”

홍범도 장군이 6.25 전쟁 때 남침을 지원한 소련공산당에 입당했기 때문에 생도 교육에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는 역사적인 접근방법이나 상황 논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괴변이다. 분명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의심스럽다는 표현으로 국군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를 예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불량난이며, 매카시즘이다.

그리고 국군의 연원을 1946년 조선경비대나, 경비대 사관학교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헌법정신에 따라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을 계승한 것으로 확인하고, 친일파를 건국세력으로 둔갑시키려는 뉴라이트 식민사관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군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한다. 우리 국군은 일본군의 후예가 아니며, 물론 미국의 괴뢰군도 아니다. 민족사적 정통성을 가진 자주적인 국군이라는 진정성과 자긍심을 가져야 사기를 올릴 수 있다는 대의를 인식하기 바란다.

[특별 기고]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장군이 묻으신다 “너희들은 어느 길로 갈거야?”



박드미트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카자흐스탄 지사장

붕짜자 붕짜.....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이 너와 나로다.

붕짜자... 붕짜... 이 소리는 단순 조롱의 소리인가, 한반도에 전쟁 불러오는 소리인가? 요즈음 많은 분들이 분노와 미래의 공포감에 빠져들고 있다. 독립 영웅 토벌로 인해 뭘 하자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전략이다. 터무니없는 막말을 쏟아낸 일정 한 세력의 전략이다. 비열하게 뻔뻔한 자세로 공격하면 반격하기 어렵다. 비논리를 논리로, 역사 왜곡한 것을 역사 팩트로 막을 수 밖에 없지만 공격한 자들은 신나서 보다 더 비열하게 더 잔인하게 조롱한다.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제대로 반격 못한다. 똑같은 사람 될 수가 없으니까, 격이 떨어지니까 반격자의 설득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사회에서 <기생충>으로, 기회주의자로 표현한 인간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략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의도를 알게되면

이들이 유인한 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PLAN <A>

육사 내 독립 영웅 :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다섯 분의 홍상 철거 => 백선엽 동상 설치.

일제강점기에 누구는 <어쩔수 없어...> 일가의 온 자산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누구는 장교로서 생도들 훈련 시키고, 누구는 봉오동 청산리 대승리를 위해 지휘관의 무거운 책임을 졌다. 그리고 삼천만 우리 모든 동포들한테 독립 투쟁의 희망을 주었다.

어느 누구는 사익, 권력, 부귀영화를 위해 을사조 체결을 앞장서 도왔고, 누구는 <어쩔수 없어...> 독립군 잡으려고 만든 간도특설대에 자발적 지원했다.

이 모든 분들이 우리 민족 역사의 상징 인물이 되었다.

의도

신흥무관학교는 육사의 뿌리로, 독립군 광복군은 생도들의 role model로 타당하냐 아니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빠앗긴 나라를 되찾겠다고 강자 앞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모든 희생 해도 결과적으로 헛된 죽음이다.

차라리 강자를 빨리 파악하고 줄 잘 서는 능력을 키우면 명예도 보장되고 국가 현충원에 편히 안장될 것이다.

뭐... 이런 신호 보내는 것 같다.

PLAN

홍범도 장군 공산당 이력으로 반발 여론 막는다. 육사 외부로 홍범도의 홍상만 뺀다.

현재 지구상에 공산국가 몇 개나 있다고 반공 이념을 내세우는지 의문이다.

의도

사실 PLAN(B) 는 비상식, 비논리, 비열한 막말을 생산 하여 우리의 힘을 뺀다. 그리고 때가 되면 홍범도 장군의 홍상은 독립 박물관 창고로, 나머지 네 분의 홍상은 육사 기념관 창고로 가두고 육사 생도들의 시선에서 제거한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애써 우리 영광스러운 독립 역사를 지우려고 할까? 🤔 의문이다, 내 머리 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세종대왕,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문제 제기한 붕짜자 붕짜 조각들 나와 퍼즐이 완성되었다.

20년 전에 러-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었다. 경제, 민간 교류, 양 국가에 학교, 직장, 군대 동료들, 친척들 상당수가 살고 있는 현실이었다. 그 당시 전쟁은 미친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심지어 지금은 같은 무관학교 졸업생들이 전선 양쪽 장교로 서 있다. 그리고 이 순간 이 시간에 서로를 죽이고 있다.이 말도 안되는 전쟁도 철 지난 이념으로 시작되었다.

<러> 슬라브족은 못난 슬라브족이고, <우> 슬라브족은 잘난 슬라브족이다. <우>슬라브족 등 뒤에는 진정 잘난 <포> 슬라브족이 조정사로 있다. 이 이념으로 은근히 세뇌 시켜서 실질적으로 같은 민족간에 갈등을 키워나 갔다. 이 갈등을 기초로 삼아 경제, 교민 교류는 점점 사라졌다. 민생 수준이 바닥을 치면서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거의 같은 말 하고, 같은 역사와 뿌리를 가진 민족이 어떻게 전쟁 포화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는가?

방법은 잔인하고 단순하다.

중앙아시아에 만쿠르트(манкурт)라는 단어가 있다. 자기 민족, 나라, 이웃, 가족을 모두 깨끗이 잊어 먹은 인간을 뜻한다. 중세 시대 노예 시장에서 가장 값비싼 인간 물건은 만쿠르트 노예였다. 이들은 어떻게 만들어 졌을까?

낙타 목 부위 생가죽을 발라내 삭발된 노예 머리에 씌워 말린다. 머리와 몸을 묶어서 햇빛 밑에 고정 시킨다. 마실 물도 안 주고 낙타 가죽은 딱딱하게 말라서 피부에 달라붙는다. 머리카락은 거꾸로 자라 엄청난 고통을 준다. 사람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왔다갔다 한다.

대부분 견디지 못해 죽고, 살아남은 자는 이전 삶의 기억을 완전히 잊어 버린다. 인간의 모습도 사라진다. 오로지 주인의 명령만 의지하고 산다. 자기 자식을 죽여도 아무렇지 않다.

이는 신화 아니고 실제 인류 역사의 하나의 면이다.

나라와 민족의 뿌리는 역사라고 생각이 든다. 이 뿌리를 삭제하기 위해 역사 왜곡부터 시작하여 민족의 기억을 지운다. 우크라이나에서도 2차 대전 상징 인물들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진 일들처럼 우리 독립군 같은 상징 인물들을 간도특설대 같은 자들로 대체했다. 그리고 그들을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다음은 이들의 사진 들고 서북청년단 같은 자들이 햇불행진을 진행했다. 다음은 러어 사용 금지 법을 입법화 시켜 이에 반대한 동부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나찌 이념 비슷한 식으로 벌레 취급하며

조롱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결국 전쟁이 나서
슬라브족들은 전체적으로 힘을 잃고 있다. 누구 좋으
라고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현재 한반도에서도 누군가
전쟁에 불 붙이고 있다.

세계 대전환기라서 여기저기 곳곳에서 전쟁 바람이
불고 있다. 우크라이나처럼 이념 싸움을 외치는 자들의
돌격대가 될 것인가, 민족 평화 통일을 통해 세계의 힘
있는 주권 민족이 될 것인가. 무도한 결정으로 아니면
지혜로운 결정으로 각 나라와 민족의 앞날이 걸려
있는 중요한 시기다.

이 결정적인 시기에 또 다시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고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나섰다. 너희들은 어떤 결정으로 어떤 길로
갈거야? 우리한테 물어보고 계신 것 같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뛰어 건너라

악독한 원수 무리 쓸어 몰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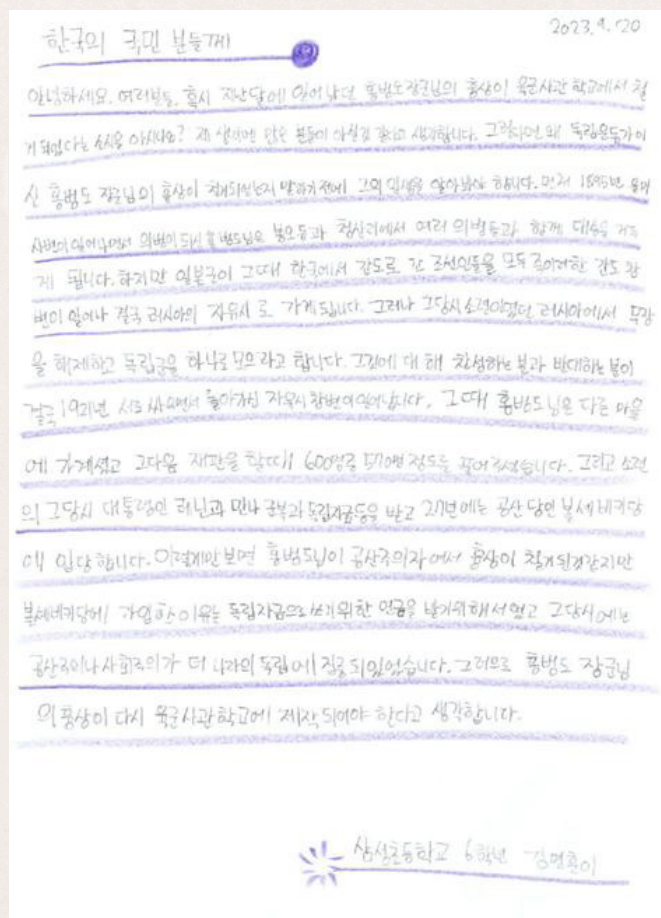
잃었던 조국 강산 회복하는 날 만세를 불러 보세.

2023.10.05. 알마티. 카자흐스탄.
8 천만 동포 중 1 명.

[시민 기고]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반대합니다!

※ 안양시 초2~중2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를 반대하는 포스터와 편지
를 기념사업회 앞으로 보내왔습니다.





To. 우리나라 국민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최근 **홍범도 장군님**에 관한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홍범도 장군님을 아시나요? 홍범도 장군님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군인입니다. 2년전 2022년도에 모든 여중을 대하여 유해 봉환식을 한지 단 2년 국인 현재, 공산주의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육군 사관 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님의 흉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 홍범도 장군님께 공산주의 이력이 있다는 것일까요? 가장 큰 주장은 공산당인 **불세비키당**에 입당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홍범도 장군님이 입당했을때는 **레닌의 공산주의**였습니다. 레닌의 공산주의는 현재

우리들이 생각하는 독재와 지배가 극된 스탈린의 공산주의와는 다른 동등한 사리를 실현하는 것이 극된 공산주의입니다. 또 홍범도 장군님이 **빨치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의 빨치산을 빨갱이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1920년대의 빨치산은 김일성과 스탈린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일성은 1912년에 태어났는데 1919~1922년 사이에 빨치산 자격으로 전두에 참여했는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빨치산은 'partisan'에서 변형된 **비정규군**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모두 빨치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님이 **자유시 참변** 당시 불세비키 전군 편에서 독립군을 몰살 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 홍범도 장군님은 자유시에 있지도 않았고 개입한 점도 없습니다. 또 공산당의 **재판위원**으로 참여한것도 우리나라 포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듯 홍범도 장군님이 이러한 모욕을 받을일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역사를 **바꾸려** 하면 안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을 **모욕**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후손들도 역사를 바로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올바른 역사를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합시다.

2023/9/27

From. 연안 연현중 학생 박서현

To. 홍범도 장군흉상철거에 찬성하신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삼상초 6학년 학생입니다. 최근에 홍범도 장군님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 충격적이었어요. 홍범도 장군님은 불을 쏘고 총으로 이끈 분이었는데, 그분의 흉상을 철거할 것이라는 내용의 뉴스였기 때문이에요. 어째서인지 궁금해서 알아보았는데, 첫번째는 홍범도 장군님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이었어요. 홍범도 장군님은 1927년 공산당인 불세비키당에 입당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의 시황이라는 인식이 나쁘지 않았고, 연공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자유시 참변때 홍범도 장군님이 여러 독립운동가를 죽였다고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때 홍범도 장군님은 흉상에 장식하셨기에 이 이야기는 거짓이에요. 또 이때 심포된 독립운동가들을 감옥에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홍범도 장군님은 그저 재판관으로 착각하며 독립운동가 600명중 570명을 풀어줬어요. 이렇게 선하고 좋은 인물만 하신 홍범도 장군님이 이런 추문을 받고있는게 너무 슬프고 죄송스러워요. 흉상철거는 이미 결정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영웅들 다 이상 폭력은 안돼요. 모욕 때는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쓰셨으면서 2년만에 이렇게 넣은 사람은 이렇죠. 이번 일처럼 계속 의사가 바뀌었다는 그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것은 바로 잡아야해요. 우리 모두 역사는 건드리지 않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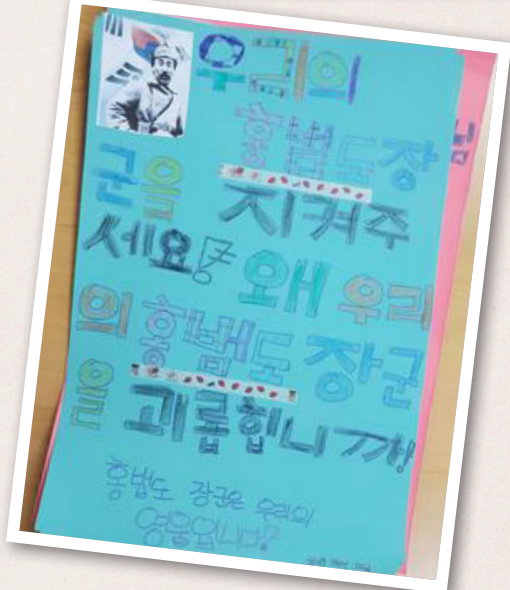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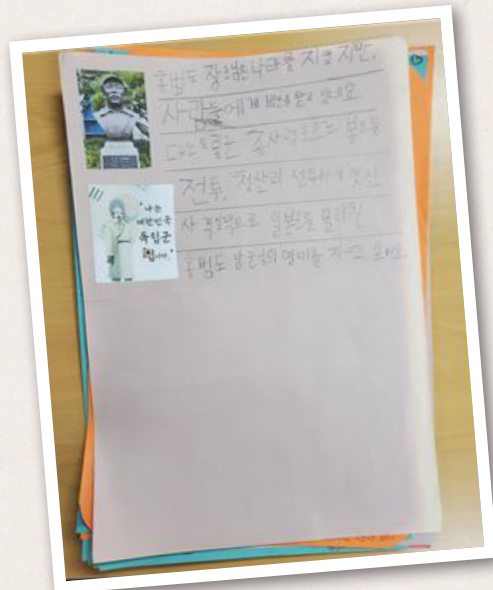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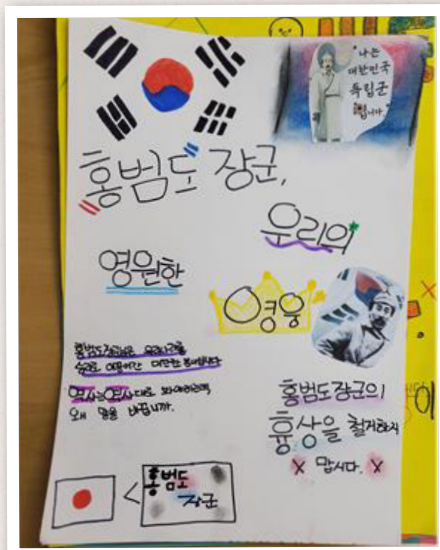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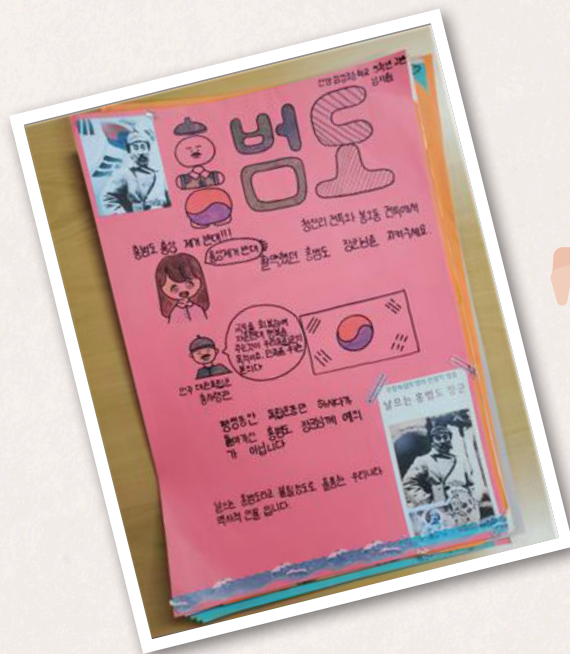
From. 삼상초 6학년 학생 권수영



국방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초완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말할 도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장관님,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님의 흉상 철거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 지금 우리나라의 위엄이란 분의 흉상을 빨갱이라는 등의 이유로 철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님은 빨갱이가 아니라고 하구요. 홍범도 장군님이 입당하신 불세비키당이 공산당은 맞지만 그 당시 공산주의는 우리가 싫어하는 김일성의 폭력, 독재, 억압...인 공산주의와는 달랐어요. 그 때 김일성은 태어나지도 않았었고요. 공산주의라고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려면 그 당시 중국, 소련(공산주의), 미국 동맹이었으니까 미국도 공산주의고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둘째, 자유시 참변도 장군님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던 그 때 장군님은 타 지역에 퇴임을 가서서 그 지역 자체에 없으셨어요. 그러니 자유시 참변도 장군님의 흉상을 제거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1

고려극장 공연



홍범도장군 유해봉환 2주기와 고려극장 설립 90주년을 기념하여, 고려극장을 특별 초청하여 8월 16일과 18일에 서울과 대전에서 '40일간의 기적-홍범도장군의 기억 속으로' 연극을 공연했다. 강제로 이주당하는 40일 동안 기차에서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서 시름했지만 카자흐스탄 도착 후 홍범도장군과 함께 씩씩하게 정착한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 서울에서는 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대전에서는 300명 가량의 시민들이 관람하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8월 18일 오전에는 고려극장 배우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유해봉환 2주기 참배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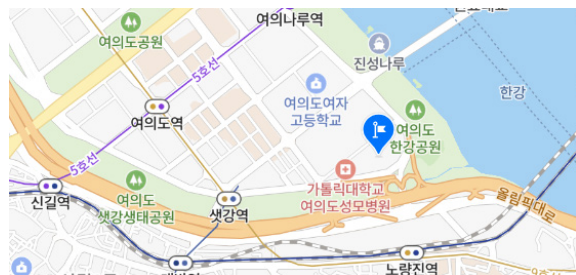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2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사무실 개소식



9월 25일에 홍성종 이사님이 기증하신 현판을 걸고 개소식을 가졌다. 참석하신 분들은 개소식 전에 홍범도장군 영정 앞에서 묵념을 하고, 기념사업회의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는 막걸리 건배를 하였다.

- 사무실 주소 : 서울 영등포구 63로 32, 603호(여의도동, 라이프콤비빌딩)



회원 동정



우원식 이사장

우원식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독립영웅 역사 왜곡 저지 특별위원회 고문을 맡아 홍범도장군 홍상 이전 계획 백지화와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전국 곳곳에서 걷기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함께 노원 중계근린공원에서 육군사관학교까지 독립전쟁 영웅 홍상철거 백지화를 위한 서울 시민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10월 31일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 일정에서는 '홍범도장군 기념공원 및 거리' 준공식에 참석하고 크즐오르다 대학의 '홍범도 컬리지' 신설 사업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황원섭 부이사장

육군사관학교의 독립전쟁 영웅 홍상 철거 시도와 관련하여, 8월 30일 한겨레 신문에 “독립운동을 폄하하려는 군 내부 친일파 잔존 세력의 준동”이라는 제하에 철거 부당성을 기고하고, 9월 22일 자 오마이뉴스에는 “1920년 10월 24일 자 뉴욕 트리뷴 지 특파원 기사를 인용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붉은 러시아나 하얀 미국을 가리지 않고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고했다.

회원 동정



이명우 이사

한미지오택건설(주)가 지난 7월 21일에 제18회 2023년도 대한민국건설환경대상 시상식에서 건설기술분야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박드미트리 카자흐스탄 지사장

10월 12일에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유희태 이사

완주 군수 취임 1년 3개월 간의 활동과 소회를 담은 <전6기 유희태 만경강을 만나다>를 출간 하였고, 10월 28일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